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3846

2013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 학위논문

평생학습 사회에서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버 들

2013년 2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평생학습 사회에서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버들

평생학습 사회에서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necessity and Role of Art Museum i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버 들

평생학습 사회에서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버 들

김버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陳 元 章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 鍾 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趙 允 晟 (인)

201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v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Ⅱ.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1.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 4
(1) 평생교육의 개념 ····· 4
(2) 평생교육의 필요성 ····· 12

2. 평생교육의 국제적 동향 ····· 17
(1) 국제기구와 국가별 동향 ····· 17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 ····· 29

Ⅲ. 평생학습사회에서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특성 ····· 35
1.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미술관 교육의 개념 및 특성 ····· 35
2.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미술관 교육의 필요성 ····· 39
3.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 42

Ⅳ. 성인대상 미술관 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 48
1. 성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사례 ····· 48
2.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관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1

Ⅴ. 결론 ····· 76

참고문헌 ····· 79

표 목 차

<표-1> UNESCO 세계 성인 교육회의 개요 ····· 18
<표-2> 국내미술관의 개관 연도별 따른 미술관의 현황 ····· 48
<표-3> 2011년 국내미술관의 보유소장품수와 연간관람객수 현황 ·· 49
<표-4> 2012국내 미술관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50
<표-5> 미술관의 성인 프로그램 수 현황 ····· 53
<표-6> 근현대 미술사 아카데미 사례 ····· 56
<표-7>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사례 ····· 57
<표-8> 서울시립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 A ····· 59
<표-9> 서울시립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 B ····· 60
<표-10> 서울시립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 C ····· 61
<표-11> 상록전시관 인문학 강좌 사례 ····· 63
<표-12>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 성인, 예술취미 강좌 사례 ····· 64
<표-13> 광주시립미술광 문화센터 2012가을학기 프로그림 사례 ··· 64
<표-14> 대전시립미술관 “판화-목판화” ····· 66
<표-15> 대전시립미술관 “한국미술사” ····· 67
<표-16> 삼성미술관 2012리움강좌 “한국 근현대사와 시각문화” ····· 69
<표-17> 삼성미술관 2012리움강좌 “아시아현대미술의 오늘 그리고 내일” · 69
<표-18> 삼성미술관 2012리움강좌 “삶의 공간” ····· 70
<표-19> 삼성미술관 2012리움강좌 “새김과 장식” ····· 71
<표-20> 삼성미술관 2012리움강좌 “밖에서 보는 그림” ····· 71

도 목 차

<그림-1>미국 교육부의 평생교육조직 및 추진기구 체계 ····· 26
<그림-2>미술관과 학교 교육의 상호성 ····· 41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importance of museum educa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Kim Beo Deul
Advisor: prof. Yoon-sung cho, ph. 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is thesis, status of art lectures targeted for adults were surveyed and analyzed to identify educational functions and contents of adult art lectures, which takes place as lifelong education. This was done in order to promote qualitative improvements in education conditions and programs. Furthermore, establishment of basic educational environment required for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were suggested.

Amongst the organizations in which art education programs for adults have been established, museums that are relatively public with systemized art lecture contents were set as study subjects for survey and analysis.

Lifelong education includes all forms of learning from the time of birth until death, and was implemented with the aim of being able to cope with the flow of drastically changing society.

Starting with the Saemaul Movement in 1970, modernization movements expanded within Korea and resulted in rapid social changes.

As a compliance to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supplementary concept of school education, lifelong learning was introduced in order to make learning possible for everyone regardless of the time or location for a lifetime.

In the mid 1960's, lifelong education started being advocated in the education field of each nation around the world and it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in 1980.

In the late 1990's, it settled down within the borders of education policies as the lifelong education act was enacted in 2000.

Various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were introduced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facilities that are not related to education such as community centers, cultural centers of department stores, and libraries are working for implementation of lifelong learning.

Museums are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public interests. Due to the requests of art major education by the citizens, art lecturers were introduc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necessities of citizens. The lectures are being actively operated to this day.

In museums, art education signifies education completed through arts and alternative education. Art education of modern museums are not national education conducted through arts or
art education for the minority. Instead, it signifies culture of aesthetic sentiments for all citizens, and stands for soci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citizens aside from school education.

Art education of museums are one of the important social functions. The core objective of social education functions in museums are to encourage the public to enjoy artistic cultures and allow enhancement in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as South Korea has a short history for museums, in order for arts to settle in as a part of culture that is shared by the public, activ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art education programs in museums are required.

In the opening of this thesis,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for

adults, which is a part of lifelong education, was recognized and the direction of the study was determined. Chapter 2 clarified the concept of lifelong learning,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examined as the necessity and characteristics of lifelong learning were based on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In Chapter 3, functions and roles of museums are identified, and the origin and importance of museum education are considered.

Chapter 4 includes analysis through cases of education programs in museums that operate art education programs. Functions are derived based on education of art museums aside from lifelong education, and problems and improvements are considered.

If effective educational research programs with application of museums become activated through museum education in the lifelong education society, museums will expand into a place of learning that can lead the lifelong education society and develop creative art education as well as broaden the way of think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effective approaches were suggested and examined.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6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의 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론이 제창되었으며, 각국에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평생교육은 태교부터 유아기를 걸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노인에 이르러 사망할 때까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000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의 급격한 발달 속도에 따른 재교육의 필요성 부각 경제력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한 삶의 질의 향상, 자아실현, 사회 생활양식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학교라는 공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미술관은 감상교육뿐 아니라 실기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장소이다. 유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계층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술관이다. 또한 미술사나 실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 확보에 유리한 곳이 미술관이다. 생활이 안정되고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와 문화예술 진흥정책에 힘입어 여러 미술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관람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비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양적 혹은 질적 분석 및 평가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미술관 교육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는 어린이 교육과 학교연계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성인 교육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국내 미술관들의 인력 및 재정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칫하면 성인 교육 담당자들은 다른 미술관 프로그램의 예들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사회에서 미술관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알아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성인대상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관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미술관 교육의 필요성을 미술과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기능과 내용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 학교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하여 등장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성과 유형을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학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현대사회에서의 미술관의 교육적 가치를 알아보고 미술관의 교육 활동을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알고 그 필요성에 대해 재고해본다.

셋째, 미술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미술관 별로 실시하고 있는 성인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교육 개념과 평생학습에서의 미술관 성인 교육의 중요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각종 미술관 교육 관련 선행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미술관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교수 방법에 관해 고찰하였다.

넷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의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료검색을 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연구, 국내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미술관 교육에 의한 역할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으로 번역된 언어는 프랑스어의 ‘L'educathion permanente'이고, 스페인어의 ’educathion permanente'이다. 이 용어를 번역하면 ‘영구교육’ 또는 ‘항구교육’이 될 것이다. 이 용어를 영어의 lifelong education으로 번역하면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이라고 옮기게 되었다.[1] 또한 평생교육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 교육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이 지니는 개념은 이와는 달리 그 내용이 포괄적인 성격과 영역의 다변성 때문에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곤란하다.[2]

정지웅(1986) 등은 평생교육이란, 한마디로 모태로부터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두고 행하여지는 교육으로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용어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이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동기는 그동안의 교육이 학교교육에만 치중하여 왔고, 일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이 교육에 대한 이미지마저 악화시킬 만큼 사회정의 실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체제를 타파하고 누구나 평생을 두고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 발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주자는 평생교육체제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3]

이처럼 평생교육이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모두를 포함해 그 기능을 개편, 강화하여 교육역량을 극대화 하려 한다고 볼 때 기본적 성격은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성격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명확한 형성과 이해를 위하여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김종서 외, 『평생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3), p.13
2) 박순식, 「평생교육체제와 발전방향연구」 (교육학석사논문, 경성대학교, 2004), p.5
3) 장원동,윤영란,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동문사, 2008), p.14

평생교육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Lengrand[4]은 평생교육을 “인간의 통합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평생교육은 각 단계에서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융화시키고 잘 조화되게 하여 인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며, 평생교육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학습을 영구히 연결시키는 교육조건의 마련으로 개개인이 자기완성을 성취하는 것”[5] 이라고 정의 하면서 인간 발달의 전인성과 계속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교육의 과정은 통합적인 구조가 필요한 과정이며, 그 원리는 ‘평생교육’이고 그를 위해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교육의 통합이 필요하다고[6] 제안하였다. 이것은 형식적인 측면만을 강하게 표현한 듯하나 소질계발, 사회발전 참여를 강조하고 평생교육은 통합적 구조와 종합적 체제를 강조하고 있어 종래의 학교교육을 분기점으로 한 인생의 시기를 양분하여 생각하던 전통적 교육 관념을 일생에 걸쳐 계속되는 교육 체제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Dave[7]는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인생의 다양한 단계와 영역에 있어서 가능한 완전한 발전을 이룩할 목적으로 개발을 촉진하고, 고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형식적(Formal), 준형식적(non-Formal), 비형식적(Informal) 학습을 포함한 종합적, 통일적인 아이디어이다. 이것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 양자가 결합된 개념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랑그랑과 같이 형식적이며 사상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느낌을 주나 랑그랑보다 발전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모든 학습의 형태를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문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로 평생교육 이념을 위한 개혁적 조직모형을 제시,정의 하고 있다.[8]

---

4)Paul lengrand, (1910~)프랑스의 교육가, 프랑스의 민중교육 운동단체인 ‘민중문화’를 창설하고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연구하여 새로운 원리로 끌어 올렸다. 유네스코의 성인교육 계획과장과 교육국 비교육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였다.

5)김충기 외,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96), p.6
Lengrand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는 기조 논문 속에서

6)김도수,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1997), p.27

7) R.H. Dave (1976) 유네스코 평생교육 연구 소장 생활, 자아실현 사회발전 개념 강조

김종서(1993)는 평생교육 개념을 이론적 관점, 포괄적 관점, 기능적 관점으로 나누어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최운실(1990)은 평생교육 관점 정립의 이론적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항상성, 교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 교육접근 방식의 다양성과 상대성, 그리고 교육체제의 개방성과 탈 정형성을 개념적 특성으로 하는 교육이념으로서, 이는 기존의 교육이념과 체제에 대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교육 양태상 으로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 그리고 교육 영역상 으로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 이념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수행과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유사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은 사회교육법 제 2조에 "사회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의 정규규정과정 이외에 과정이며 평생교육을 위한 하나의 교육 형태이고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청소년과 성인이 정보,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일생동안 계속되는 자기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학교 교육을 포함 하는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은 구별되어야 한다.[9]

---

8)김종서 외, 『평생교육원론』(서울: 교육과학사, 1993), p.29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은 교육대상을 분류 준거로 한 용어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인교육의 대상은 성인이며, 교육방식은 비형식 교육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성인을 위한 학교교육도 성인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교육과 다르다. 평생교육의 개념 중 성인기 이후의 교육활동이 이에 해당된다.[10)]

비형식 교육 (nonformal education)은 교육의 양태 또는 교육의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서 교육대상에 대한 규정의 의미는 내포되어있지 않다. 비형식 교육은 정형성의 정도에 있어 전일제 정규학교 교육으로 구분되는 형식교육과 우연적 학습 또는 부수적 부차적 하습으로 규정되는 무형식 교육의 중간을 차지하는 교육의 양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교육도 아니고, 무형식 교육도 아닌 준 형식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양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형식 교육은 사회교육과 유사한 개념에 속한다.[11)]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영, 미 사회의 사회교육 형태로 개념상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이미 정규교육을 경험했던 졸업생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 형태이다. 유럽에서는 further education[12)] 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1944년 교육법에 의하여 제도화된 개념으로서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일제 또는 정시제로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13)]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은 OECD[14)]등에 의하여 구상된 혁신적 프로그램으로 한번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다시 정규교육기관, 즉 대학이나 직업훈련 기관에 입학시켜 재학습의 기회를 주어 직업적, 기술적으로 자질향상을 기하게 하는 교육이다. 영국의 경우 중, 고위 간부들이 대학에 와서 일정

---

9)최운실,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 교학사, 1990), p.16

10)김충기 외,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96), p.23

11)최운실, 『평생교육 관점에서 본 사회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원, 1995), p.109

12) further education 추가교육, 영국에 있어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을 말함, 계속교육이라고도 하나 다른 나라에서의 계속 교육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주로 지방교육 당국(LEA) 산하에 다수의 계속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며, 5세에서 16세까지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18세까지 추가 교육이 제도화 되어있다

13)김충기외, op.cit.,pp.22

14)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기간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나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체 간부들이 외국 유수 대학에서 단기간 의탁교육을 받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15]

생애교육(Lifelong education)은 일본에서 Lifelong education의 해석으로 진로교육, 생애직업교육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career education으로 평생 동안에 걸친 학교 및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며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을 위한 기초를 개선하여주고, 직업상의 기능획득을 촉진시켜주며, 교육을 글들에게 뜻 있는 것이 되게 하면서 훈련기회의 폭을 넓혀준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교육 (Community education)이라는 용어 개념은 처음에 Puerto Rico[16] 다른 저개발국에서 정식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사회교육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 발전도상에 있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Puerto Rico에서와 마찬가지고 사회교육 행정기구에 Community education Division (PENMAS)이 있다.[17]

이상의 기술된 평생교육의 개념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인간화 교육이다.

둘째, 평생교육은 한정된 기간의 교육이 아니라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평생에 걸칠 교육이다.

셋째, 교육의 대상은 인간 개개인의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다.

넷째, 능동적 자율학습과 동기를 중시하는 계속적 학습으로서 일생동안 학습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다섯째, 종적, 시간적인 인간 성장 과정의 수직적 통합과 횡적, 공간적인 인간생활의 전 영역의 수평적 통합을 강조한다.

여섯째, 전통적 학교교육을 거부하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 이념을 내포하는 교육이다.

---

15) ibid

16) Puerto Rico, 서인도 제도의 섬; 미국의 자치령; 수도 Sanjuan

17)황종건, 「사회교육제도의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지역사회교육연구소, 1980), p.21

평생교육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개념의 탐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들은 세 차례의 성인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를 거치는 동안 고전적이며 전통적인 교육관에 대한 근본적 혁신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1949년 UNESCO[18)]가 창립된 후 최초로 열린 제 1회 엘시노어 '성인교육국제회의'와 11년 후인 1960년 제 2회 몬트리올 '성인교육국제회의'는 세계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성인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다루게 되었다. 1965년 12월 유네스코가 주최한 성인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성인교육추진국제위원회' 제 3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어 위원회는 현대적 평생교육론의 효시 랑그랑의 계속교육에 관한 논문을 검토한 후 유네스코사무국에 인간의 일생을 통해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평생교육을 구상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 '세계교육의 해'의 기본이념으로 평생교육의 등장과 함께 랑그랑의 '평생교육개론'(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이 발간 보급되면서 평생교육의 개념은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년 뒤인 1972년 동경의 교육의 전체성 파악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안목에서 본 성인교육'을 주제로 한 '세계성인교육회의', 1976년 나이로비의 '성인교육 발전에 관한 권고'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제 19회 총회를 개최하여 평생교육의 개념과 보급을 위한 협의, 연구 과제를 진행, 추진하여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을 위한 과학적 기초를 확고히 하여 현행교육제도를 재구성하거나 교육제도 외의 교육까지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속 교육과 실생활을 통합시키는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의 종합적인 체제 접근이 시도되었다.

또한 1972년 유네스코는 E.Faure[19)]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를 구성, 평생교육의 본질과 방향, 과제를 분석한 일명 포오르 보고서로 알려지고 있는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을 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1976년에는

---

18)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r Scientific and Coltural Organization 국제 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국제엽합전문 기관의 하나)

19) E.Faure,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1972)을 통해 새시대 교육제도의 개혁방향으로 '학습하는 사회건설'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초, 중등 및 고등교육제도와 교육의 틀을 개혁함으로써 교육의 지평을 넓힐 것을 강조하였다.

다베(R.H.Dave)[20]를 중심으로, 1980년에는 크로플리(Cropley)[21]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연구를 계속하여 종합연구결과를 보고서로 간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국제회의나 유네스코의 종합적인 연구는 현 교육체제에서 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과 모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1973년 춘천에서 개최된 '평생교육 발전세미나'가 출발점이 된다. 이어서 평생교육의 방향 및 전략을 협의하기 시작하여 1976년에는 계명대학교 지역사회연구소의 사회교육지도 세미나가, 1977에는 한국사회교육협의회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방법'이란 주제로 전국사회교육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78년에는 한국사회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생애의 단계별 교육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물론 국민의 의견조사, 한국의 전체 사회교육 기구 및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이론과 실제적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8년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 제출 보고서에 앞으로의 교육정책방향을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의 결과로 헌법에 평생교육의 조항을 명문화하여 평생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게 되었고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발전적 전략과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제창되고 발전되어온 평생교육의 개념은 짧은 기간에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각 국에서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랑그랑의 평생교육의 개념이 소개될 때만 하여도 이념의 소개나 사상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현대교육의 개혁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이념이나 방향으로 구체적인 조직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

20) R.H. Dave,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활동'이라고 말함으로서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함께 관련시킴.

21) Cropley, 평생교육이란 모든 개인이 일생주기 동안 어느 때든지 수업 공부와 학습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조직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1997), 평생교육이란 보통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개별 사람들의 삶을 통한 체계적이고 목적이 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체계(1979)

그 후 많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모형과 교육개혁의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 국가교육의 제도적 개혁과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방법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교육은 대부분 형식적인 학교교육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청으로 더 이상 좁은 범주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사회변화와 교육과의 관계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템포에 따라서 교육계는 영향을 받아 왔고, 변화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로부터 받은 충격도 컸으며, 그에 상응하는 교육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개혁은 단순히 학교교육 개혁만으로는 개혁의 성취가 불가능하며 학교교육을 포함한 전체교육 영역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22] 교육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창조적으로 그 환경을 개선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적응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형식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으면 계속적인 교육과 전체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인간의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발달과 삶의 과정으로써 분리해서 생각했던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은 유기적인 교육체제로 통합되어야 하며 인간생활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질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함과 동시에 자아실현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을 성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과 전체적인 교육체제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평생교육이 모든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시사하며 논의 되어온 평생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인간은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전 생애 걸쳐서 교육을 필요로 하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전 생애를 통하여 종적, 시간적 교육의 수직적 차원과 횡적, 공간적 교육의 수평적 차원을 근간으로 자기성장과 자율적인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극대화시킨다. 충족된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학습활

22)김도수,op.cit.,,pp.35

동이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통합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급격한 사회변동은 전문화, 특수화, 조직화된 현대사회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 및 직업기술의 고도화,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를 가속 시켰고 가치관의 혼란, 이데올로기의 위기 등 생활양식의 전반에 걸친 변화로 새로운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속적인 교육이 요청된다.

셋째, 날이 갈수록 변화되는 사회 환경, 직업 환경, 과학기술, 산업구조 등을 한계성을 들어내는 수직적 차원의 학교중심교육체제와 전통적 학교 기능으로는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전체교육의 총제적인 협력체제의 교육이 필요하다.

(2)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주창자인 랑그랑은 오늘날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간의 삶은 도전의 연속으로 규정하고 변화 속에서 야기되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생교육의 요청을 자극하는 현대의 도전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23)]

1) 현대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의 증대(변화가속화, 수면연장)
2)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전(급속한 진부화)
3)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인 도전(혁명, 전쟁, 체제변혁)
4)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량의 급증
5) 경제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자유시간 증가, 일과 여가의 분리)
6)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상실(남녀, 부부, 노소, 사회적 상하관계)
7) 육체(정신과 육체의 불일치)
8)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위기(가치관의 다양화, 신념의 약화)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도전(요청)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

23)op. cit., pp, 11-27

히 느끼게 되었는데, 현대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적인 교육보다는 양적인 교육에 치우쳐 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고 기존의 공식교육에만 의존했던 한정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새 교육이념으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원인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1) 지식·정보의 대량화 및 단명화

1970, 1980년대에 '지식의 폭발'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당시에 이미 지식과 정보의 '홍수'사회로 접어들었고, 21세기인 지금은 대량의 지식과 정보가 확산되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었다. 지식정보화 사회란 지식과 정보가 사회생산의 근간이 되는 사회다. 리프킨(R. Rifkin)이 말했듯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노동자는 후기 산업사회와 후기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제를 구성하는 정보 흐름의 창조자이자 조정자이며 전달자다[24]. 여기에 매스컴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가 한층 더 빨리 확산되고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고, 그에 따라 평생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확산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단명하게 또는 쉽게 소멸하게 만들었다. 미래학자들은 지식이 2020년에는 73일마다 2배로 증가하며 2050년에는 현재 지식의 1%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식의 생성은 물론 그 소멸 주기도 급속히 짧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25] 이렇게 기존 지식과 정보의 단명화와 새 지식으로의 교체 요구 등은 평생 교육을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탈자본주의 사회(post-capitalist society)'(1993)에서 자본주의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한 Drucker(1909~2005)[26]의 주장도 이에 해당한다. Drucker는 탈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수단은 토지와 같은 자본이나 노동이 아

24)차갑부, 『평생교육의 이해』 (학지사, 2004)
25)Drucker, 1998;이희수, 2005:10에서 재인용
26)Peter Drucker(1909~2005) 미국의 경영학자, 1909년 11월 오스트리아 벤에서 출생, 빈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 법학부를 거쳐 3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법과 공법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프랑크 푸르트에서 신문기자로 일하기도 했다.

닌 지식이라고 본다. 탈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식 노동과 지식노동자의 생산성의 중요하다.

2) 학습 주체의 변화

지식은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습득된다. '교육'이 주로 가르치는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학습은 학습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중시한다.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으로 바뀐 데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평생학습 사회는 교사가 주도하는 학습(Guided learning)을 넘어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조직하는 자율적인 학습(Do-it-yourself learning)을 중시하는 사회다.[27] 지금까지 교육이 특정 시기 동안에 학교 본위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학습은 평생 동안 비형식학습(non-formal learning)위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평생교육의 주체는 가르치는 자가 아닌 학습자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평생학습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3) 교육의 확장

산업사회에서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이 인적자원개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넘어선 평생교육이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경직된 학교교육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삶의 여건과 직업세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이 필요하다. 누구나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대상과 장면을 확장하는 일이 평생교육의 기본 원리다. 김대중[28] 정부 때 유행했던 '신지식'과 '신지식인'은 지식정보사회의 지식의 성격과 길러내야 할 인간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드러낸다. 지식은 끊임없이 새로이 변하고 있고, 지식기반 사회는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학습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 신지식인이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지식을 다루고 생산하며 소비하

---

27)한승희, 『매일경제 지식부』, (2000:21)

28)김대중(1924-2009)제 15대 대통령을 지낸 한국의 정치가,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아태평화재단)을 조직하여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1999년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50인 중 공동1위에 선정되었으며,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는 평생학습자를 일컫는다. 지식정보시대의 요청에 따라 교사가 주도하였던 학교교육을 넘어서서 스스로 선택하고 조직하는 평생학습이 중요하게 되었다.[29] 또 학교교육을 보충하거나 공식적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애의 각 발달 단계에서 수행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새로이 나타나는 개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4) 여가의 증대

인간의 생활시간은 흔히 생리적 필수시간과 노동시간으로 구분되어 왔다. 과거에는 생산을 위한 한 사람이 노동의 전 과정에 개입해야 했지만, 분업이 이루어지고 생산기술이 향상되면서 자유시간이 생겼다. 수면, 목욕, 식사 등의 생리적 필수시간과 생산 활동을 하는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각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여가가 노동시간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가는 생계를 위해 꼭 투입해야 할 시간도 아니고 의무가 따르지도 않는 시간이다. 그러나 개인은 각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을 위해 여유로운 시간과 활동을 구가한다. 이렇게 여가시간이 증대하고 개인이 여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려고 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그 밖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의 범위에서 벗어나 인생의 모든 단계에, 그리고 각자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평생교육이 중요해졌다.

5) 비판적 의식 고취

현재에도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이데올로기 간 대립이 남아있다. 대개의 이데올로기들이 민주화와 인간화를 주창하고는 있지만, 각 이데올로기들은 서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간 대립 속에서 개인은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삶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영위해야 할지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 있고 적극적인 비판의식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각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

29)ibid

자유, 그리고 민주적 삶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이념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도 요청된다. 특히, 각 이해집단의 숨겨진 의도나 이기적 정책수립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기존의 학교교육이 특정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거나 그렇게 정당화된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전수하는 핵심기관 이었다면, 평생교육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를 숭상하도록 한다. 예컨대, 브라질의 Freire[30]이 의식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비판적 의식을 고취한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의 학교교육이 '은행 적금식'교육으로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라면, 의식화 교육은 피지배층이나 종속집단을 구속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의 실상을 파악하게 하면서 그 속박의 음모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사람들이 각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6) 평생교육의 특징

평생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평생교육은 평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의 과정이다. 기존의 학교교육이 일정 기간에 이루어졌던 '교육'이었음에 비해, 평생교육은 인생의 모든 국면을 다루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학습'의 과정이다. 평생학습의 틀은 전 생애에 걸쳐 모든 형식적·비형식적 학습 형태를 포괄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의 학교교육이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에 비해, 평생교육은 나이와 장소의 제한 없이 일어난다. '평생교육법'에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평생교육이라 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기관과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이 평생교육이다. 평생교육은 계획적 학습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을 실현시킨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의 독점에서 벗어나 사회를 교육적인 환경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일반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조화시키거나 공식적 교육과 비공식적 교육

30) Paulo Freire, 브라질의 교육자로 20세기 대표적 교육사상가이다. 브라질을 비롯하여 전세계를 돌며 문맹퇴치 교육에 앞장서고 전세계 28개 대학의 명예교수를 지냈다.'해법교육'을 주장한 저서'페다고지'는 전3세계 민중교육학의 고전으로 읽힌다.

을 통합하는 등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추구한다. 평생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중시한다. 전통적 학교교육이 국가가 주관하는 교과목과 교사 중심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평생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생존과 필요에 맞는 교육 내용과 경험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특히, 학습자 자신이 자기의 학습을 스스로 주도하게 한다. 평생교육에서는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관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습 동기를 육성하여 자기 속도대로(self-paced) 자기 주도적(self-directed)으로 학습하는 일을 중시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주로 비형식적 교육의 모습을 지닌다. 비형식적 교육이란 형식적 교육보다는 덜 체계적이고 학력을 인정해 주지는 않으나 비교적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포괄한다.[31)]

2. 평생교육의 국제적 동향

(1) 국제기구별 동향

1) UNESCO[32)]의 평생교육정책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유네스코가 가장 먼저 사용한 개념이다. UNESCO에서 1960년대 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를 강조하는 이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UNESCO는 1949년 덴마크 엘시노어(Elsinore)[33)]에서의 제 1차 세계성인교육회의(1949)를 시작으로 1997년 독일 함부르크 제5차 세계성인교육회의(1997)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

31)장원동, 윤영란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동문사,2008), p,344

32)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UNESCO라고 부르는 이기구는 국제 연합전문기구로의 하나로,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 전세계 73곳에서 사무소와 부속연구소를 두고 있다.

33)Elsinore, 미국 유타주 시비어카운티에 있는 마을

정립하고 실천사례를 보급하였다. 초기에는 성인교양교육, 성인 기초교육 및 문해교육 중심의 정책을 다루었으나, 이후 성인 계속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34]

<표-1> UNESCO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요[35]

구분	연도	장소	주제	참가국
제1차	1949년 6월	덴마크 엘시노어	성인교육의 개념정립	25개국 총 79명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주도, 소련 포함 공산권국가 불참)
제2차	1960년 8월	캐나다 몬트리올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성인교육	51개국 총 112명 (공산권국가, 라틴아메리카 비정부사회기관 참석)
제3차	1972년 7월	일본 도쿄	평생교육에서 성인교육의 역할	82개국, 37개국 국제기구 총 360여명 (개발도상국가의 참여 증가)
제4차	1985년 3월	프랑스 파리	학습권선언 : 만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조성	122개의 회원국, 비회원국, 국제협력기관에서 총 841명
제5차	1997년 7월	독일 함부르크	21세기를 여는 열쇠로서의 성인교육	130개국 총 1,507명 (비회원국, 국제협력기관, 협회, 비정부조직 등)
구분	배경		성과	주요 논의 내용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경험과 사회적 여망		성인교육분야세계적인 결속, 국제협력의 계기 마련	전 세계가 공유 할 수 있는 성인교육 개념의 정립 회귀지향적 서유럽지역 성인 교육회의 성격

34)변종임 외 8인, 『각국의 평생교육 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2006)
35)이희수, 조순옥 「UNESCO세계성인교육회의가평생교육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분석」, 2005,P.136

제2차	전후 식민국가의 독립에 따른 탈식민화와 민족주의	‘몬트리올 선언’ 채택	·성인의 분해의 강조 ·평화와 성인교육간의 관련성을 부각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성인교육이 필수적임을 주장
제3차	제2차 UN개발 연대와 냉전 ‘존재를 위한 학습’(Faure, et al., 1972)’의 발간	통합적 평생교육체재 속에서 성인 교육의 지위 확립	·학습할 수 있는 권리 강조 ·소외계층의 교육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국가교육체재 내에서 성인교육의 제도화 및 지원체제 구축 필요성 제기
제4차	경제상황의 악화 및 성인교육지원예산 삭감 나이로비 유네스코 19차 총회	‘학습권’선언 채택	·성인의 문해정책 강조 ·교육의 민주화와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성인교육의 발달성인교육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증전방안
제5차	글고벌화 좀티엔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회의 ‘학습: 우리 속에 감춰진 보문(Delors et al., 1996)’발간	함부르크 성인학습 선언 및 미래를 위한 의제 채택	·성인교육의 위상 및 역학 정립 ·인간중심학습 및 발전 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인학습과제 논의

평생교육의 개념은 1965년 랑그랑이 유네스코의 성인교육발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 of Adult Education)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기존의 교육체제와는 달리 교육의 계속성, 연계성, 전생애성, 자발성, 전체적 인간발달 도모, 모든 이를 위한 교육권 보장의 차원에서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제시되었다. 1970년 ‘국제교육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ducation)'을 맞이하여 평생교육을 기본 의제로 채택하였고, 이후 평생교육은 유네스코 주관 교육사업의 기본 정책방향이 되었다. 또한 평생교육개념을 구체화한「평생교육입문(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1970)」이란 책을 발간하

여 보급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전 세계에 보급하였다.

1972년 동경에서 열린 세계성인교육회의(1972)에서는 성인교육이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 · 경제 ·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형식적 및 비형식적 교육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인식과 연계의 필요성, 나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조직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76년 나이로비회의(1976)에서는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1985년 파리 세계성인교육회의(1985)에서는 '배울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1990년 태국 좀티엔(1990)에서는 '모든 이를 위한 학습기본권 EFA(Education for all)선언'을 하였고, 1997년 함부르크 '성인교육선언(1997)'에서는 인간이 전 생애를 통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0년 세네갈 다카 세계교육포럼(2000)에서는 '평생교육을 향한 교육권'을 선언하여 국제기구와 정부 및 지역 간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기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가 제2의 평생교육선언으로 제안한 '들로(Delors)보고서(Learning: The Treasure Within, 1996)'[36]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존재를 위한 학습이라는 큰 이념적 틀을 준거로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together)을 4가지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각국이 평생학습의 의미를 지나치게 시장주의적인 학습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생학습의 본질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재규정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OECD[37]의 평생교육정책

OECD는 1973년에 현실적 전략인 순환교육을 '평생학습 전략(Recurrent Education: a Strategy for Lifelong Education)'으로 내어놓았다. 초기 OECD의 평생교육은 순환교육으로 생애에 걸쳐 교육과 일의 주기를 재분배

36) Delors report, 1993년 유럽연합(EU)에서 채택한 유럽 경제 진단 및 방향에 관한 보고서
37)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하는 방식을 의미했다. 기존의 일회성 학교교육 체제가 지니는 비효율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시기를 평생에 걸쳐 순환적으로 재분재하여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환교육의 주된 목적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업적 재적응과 생산성 제고이며, 교육방식은 학교교육이 주가 되고 학교교육과 직업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교육 형태를 취하였다.

OECD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 국가발전은 평생학습전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아래,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순환교육으로부터 만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에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1996년 교육부장관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안건으로 하고 국가발전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학습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어서 1997년 노동부 장관회의에서는 젊은이와 성인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평생교육개념으로 확장하였다. 1998년 사회부 장관회의에서 평생학습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교육, 직장, 취미 등의 활동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략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노년에 가까워 질수로 더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확장하였다.[38)]

이와 같이 OECD는 평생학습을 생애에 걸쳐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밖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비형식 학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취업한 성인을 위한 순환교육을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확대시켰다. 평생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성인의 제2의 출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은 교육적령기에 놓친 교육기회를 보상하여 준다는 제 2의 교육이나 성인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할 능력과 학습하려는 동기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38)ibid, P.348

3) EU의 평생교육정책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유럽공동체(EU)[39]에서는 평생학습을 주요정책으로 채택하여 지식사회 도래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유럽 만들기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 다른 한편, 유럽공동체의 발족으로 유로화가 상징하듯이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식경제 구축을 위한 경제적 경쟁력과 고용가능성 제고 못지않게 하나의 유럽공동체와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포용과 적극적 시민정신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의 평생학습정책은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시민정신과 지식경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유럽공동체의 정의에 따르면, "평생학습은 지식, 기술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형식교육, 비형식 교육에 관계없이 모든 목적 지향적 학습 활등을 포괄한다." 이 정의는 학습의 과정은 생애에 걸쳐 개인 활동의 한 부분을 형성해야 하고 평생학습의 궁극적 책임자는 개인이므로 정부의 각 부처와 사회전체는 평생학습을 제공하는데 이써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습활동은 넓은 의미로 이해되므로 형식,비형식 학습, 이론,실천 코스,연구와 훈련등을 포괄하고 평생학습의 목적은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중심이 이전에는 정규 학교교육이었던 것이 정규교육이수 전후의 비형식적 형태의 교육을 포함하는 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학습이나 재택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장소와 학습방법의 등장이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유도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평생학습'을 정치적 주요 의제의 목표로 설정하고, EC를 통해 회원국 간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6년을 '유럽 평생학습의 해(European Year of Lifelong Learning)'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는 소크라테스(Socrates)[40],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hi)[41], 청년

---

39) EU(Eurepean Union)유럽연합, 1994년1월1일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EC의 새로운 명칭, 1999년 1월부터 유로화 단일통화체제를 출범시켰으며 동유럽 국가로 가맹국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0)Socrates (BC 470~399)기원전 5세기경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문답법을 통한 깨달음, 무지에 대한 자각, 덕과 앎의 일치를 중시하였다. 말년에는 아테네의 정치문제에

(Youth) 등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유럽국가에서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은 "평생학습의 사회는 우리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같이 있다"는 목표를 정책의 지도 원리로 택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정규교육만이 아니라 생애에 걸쳐 개개인의 인간적 · 직업적 필요에 기초한 학습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평생학습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42].

(1-2) 국가별 동향

평생교육의 주요핵심은 직업 능력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에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평생교육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프랑스는 1968년 11월 공포한 '고등교육기본법'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관여 필요성을 제시한 이후, 1971년에 '평생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직업 자격과 연결된 학교 이외의 직업교육을 모색해 왔다. 이법은 근로자들에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생직업교육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평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지닌다.

①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모든 교육과 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보는 견해

②학교 졸업 후의 계속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보는 견해

③학교 후의 계속 직업교육에 한정하는 견해

이중에서 세 번째 견해가 프랑스의 평생교육을 가장 잘 대변한다. 1981년의 F. Mitterand[43] 정권은 교육학점제를 구상하였는데, 이는 학교교육에서 어떤 자격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 제 2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 자격의 취득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또 1989년부터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무자격 청소년, 실업자, 노동자 등에게 계속적인 학습을 시키고 있다.

연루되어 사형판결을 받았다.

41)Leonardo Da Vinci(1452~1519) 이탈리 르네상스기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 발명가로서 근대적 인간의 전형.

42)변종임 외,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서울:교육과학사 2006)

43) F.Mitterand(1916~1996), 1981년5월10일 프랑스 대통련선거에서 프랑수아 아테랑 사회당 당수가, 대권 도전 3수만에 승리를 차지, 프랑스 최초의 좌파 사회당 정권을 출범

중등교육기관이 평생학습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점이 프랑스의 특징이다. 동일지구의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10개교 정도가 한 학교군을 이루어 지구 내의 직업교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고 있다. 평생 교육 관여 기구 또는 제도로는 직업인을 위한 국립 공예원의 야간제 고등전문학교, 대학과 그랑제콜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국립통신교육센터 국립대학연합에 의한 통신교육, 국립대학의 공개강좌 등이 있다.

2) 영국

영국의 평생교육은 19세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교양, 취미, 직업, 레크레이션과 같은 학습활동은 성인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추가교육은 의무교육 연령을 넘은 자에 대한 전일제 및 시간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가 이용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의 학습 상황에 평생학습이 도입되었다. 평생학습의 첫걸음은 1973년 러셀위원회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평생교육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순환교육, 지역개발, 여성교육, 문해교육, 여가교육 등의 분야를 중요할 것과 성인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의 이동을 제언하였다. 1977년 '성인계속교육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가 설치되면서 전통적인 성인교육에 자격취득 과정과 직업기술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해 평생학습을 체계화 하고자 했다. 대처 정부 이후 추가교육은 평생학습이라는 새로운 틀로 재정비되었으며,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영국의 평생교육체제는 매우 빠르게 재편되었다. 1983년부터는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을 중심으로 행하는 청년훈련(Youth Training)이 도입되었다.[44] 영국의 평생교육은 모든 연령층의 기초 문해력에서 상급 학위까지, 그리고 공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학습을 포괄한다. 추가교육과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2000년에는 개방교육과 원격교육의 성격을 띤 산업대학(University for Industry)을 설치하였다. 또한 개인학습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s)를 시행하고, 16세 이후의 성인의 문해력을 증진시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45]

---

44)장원동, 윤영란 『평생교육의 이해』(서울: 동문사, 2008), P.353
45)『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영국의 평생 교육적 관심은 영국 교육부(DFES)의 '교육전략 2006'중 성인교육 부분을 언급한' 교육목표에 잘 나타나 있다. 성인학습을 통해 기술을 개선하고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17세기부터 시작 되었으며, 미국 전역에 걸쳐 일반화 되었고 오늘날 많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발달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46)]

교육의 대부분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운영되는 것이 미국 교육제도의 특징이지만 성인교육제도는 그 반대로 연방정부법에 의해 발달해왔다. 미국의 평생교육은 기존 교육법과 함께 1966년의 성인 교육법(Adult Educator Act)이 만들어 지고, 그 후 10년 후인 1976년의 평생학습에 관한 규정이 고등교육법안 (Title I, Part B)에 자리 잡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미국사회는 연령, 성,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교육배경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미국시민들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마련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동법 제 132조에서 평생교육의 범위를 성인 기초교육, 계속교육. 독립적 자유학습, 농업교육, 교정교육, 특수교육 및 기타 성인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유네스코의 포오르 보고서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모든 교육활동을 새로운 하나의 교육체제로 통합하고 재편하기 위한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기존의 성인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또한 그 존재 자체가 고등교육법안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비형식적 장면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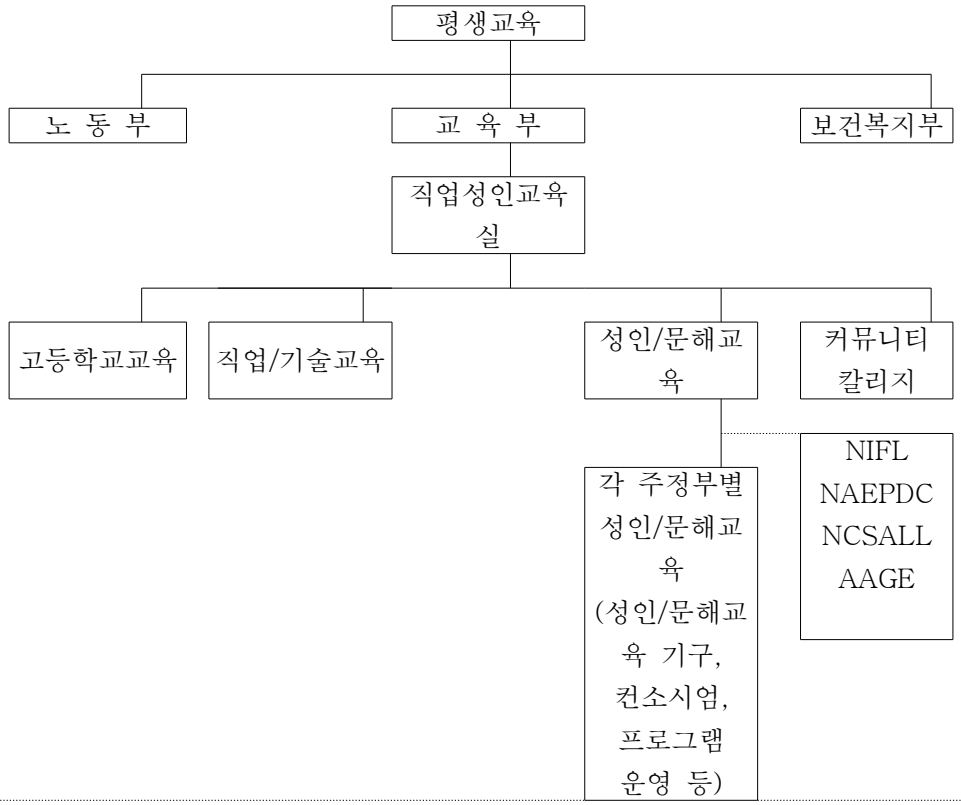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보장과 관련된 체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여 각 주정부 및 대학, 기관들이 서로 연계하여 평생교육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

46)박순식 「평생교육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2004), p.39

연방 정부의 평생교육부서는 직업성인교육실 하에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성인/문해교육, 커뮤니티 칼리지의 체제로 나누어서 전국 수준의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정부 단위로 성인/ 문해교육 추진 부서를 두고 단체 및 학교와 연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1>미국 교육부의 평생교육조직 및 추진기구 체계



미국 교육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행할 전략적 계획 (STRATEGIC PLAN 2002-2007)을 발표하였는데, 그 세부 목표 중 하나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 중등 이후 및 성인에의 접근 및 질 향상 (Enhance the Quality of and Access to Postsecondary and Adult Education)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업무는 주로 직업 성인교육실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①종교 및 인종, 사회적 지위 및 학습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기회

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학에의 입학 및 졸업 격차 감소 전략, ②중등 이후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③중등 이후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재단구조 설립, ④흑인대학, 라틴계기관, 원주민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 그리고 ⑤미국 성인의 문해력 및 고용능력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평생교육은 미국 성인계속 교육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AACE)등의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이중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성인 기초교육, 성인 중등교육, 영문해 프로그램 등에 집중되고 있다. 성인 기초교육(Adult Basic Education; ABE)이란 읽기, 쓰기, 말하기, 문제해결, 계산 등의 기초문해관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성인중등교육(Adult Secondary Education; ASE) 프로그램은 비정규 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까지의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GED테스트[47], 외부 학위수여 프로그램(external diplom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이민자 및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미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영문해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생교육관련 사업의 추진이 다양한 기관 및 학계, 주정부와 연계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내에서도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타 부처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프로젝트 및 다양한 사업이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심으로 수행되는 평생교육사업은 주로 성인 기초교육 및 문해에 집중되고 있다.

4) 일본

일본에는 '평생'이라는 말이 없고 '생애'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생애교육 또는 생애학습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1870년대 말에 사회교육이라는 말을 벌써 사용하였고, 다이쇼기 (大正期, 1912~1926)에도 이를 계승했다. 당시의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제외된 민중을 위한 교육을 의미했다. 1949년에 '사회교육법'을 제정해 기틀을 다졌는데, 그 내용은 총칙,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 사회교육 관계

47) GED테스트,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의 약자로 미국과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한국의 검정고시이다.

단체, 사회교육 위원, 공민관, 학교시설의 이용, 통신교육의 일곱 개 장으로 되어 있다. 제 2조에서는 사회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주로 청소년 및 성인에게 실시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였다.[48] '생애통합학습'은 1960년대 일본의 학교 중심 교육체제를 개혁하고 성인 근로자의 재교육(훈련)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생애를 통해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학습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과 학교 졸업장의 관련성을 약화시킴으로써 학력사회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치유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일본의 평생학습은 정신적 풍요와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서 평생학습을 학습자 중심으로 전개하고 그것을 지역개발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49]

5) 중국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용어는 1981년 교육부(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농교육국'에서 '성인교육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내외에 활발히 교유하고 발전되어 오고 있다.

1949년부터 1965년까지 성인교육은 초보적 설립단계로 이 시기에는 문해교육이 그 중심과제였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혼란과 침제기를 거쳐 문화혁명 이후 점차 회복되어 국가기관과 각종 기업체 내에 성인들의 재직 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인력양성의 성인교육이 시작되었다. 1982년에 이르러 성인교육의 회복사업은 정규화 되었고,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성인교육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중국의 평생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많아서 관리 체제상에서나 행정관리면에서 무척 어렵다. 평생교육의 법규 내용을 요약하면 1991년 국가교육위원회가 편찬한 현행 교육 법규집 중에서 성인교육 법규에 해당되는 것이 서른 한가지로 행정법규와 법규성 문건이 여덟 가지, 국무원 부분의 규약이 스물한 가지, 규약 성질의 문건이 두 가지이다. [50]

---

48)변종임 외,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2006)
49)『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50)서울특별시 교육 연구원,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서울: 청화,1997), p.294-297

중앙 교육행정 조직은 국무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중화 전국 총노동자회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교육 행정조직은 성 · 시 성인교육 행정기구와 성 · 시 자치구 이하의 현급정부로 나눌 수 있다. 중앙 교육행정조직은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국무원을 두고 국민경제의 건설, 사회발전의 계획, 재정, 예산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성인교육의 관리를 담당하는 성인교육국이 있고, 지방 교육행정 조직은 그 산하기구로 성인 교육처를 두고 지방의 성인교육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성인교육은 중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인 요청에 의해서 성인 교육이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되어 왔다. 중국의 평생교육의 특색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성인교육은 개혁, 개방과 경제발전에서 사회의 현대화를 위한 인력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성인교육은 각종 교육형식을 통하여 성인들에게 충분한 연수 및 재직 훈련기회를 주고 있다.

③전담하는 전문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성인교육 발전에 유리하다.

④성인교육 학원처 같은 성인교육 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성인 학습자들에게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및 연수교육 등을 제공 하고 있다.[51]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

1)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경과 과정

① 서당에서 평생교육과 성인기초 교육(1950년대까지)

한국 교육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서당은 유사 이래 서민들의 기초교육과 문해 활동을 담당해 온 한국 최초의 사설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 활동을 겸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시대 경당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이 서당제도는 일제치하 때 구조상 큰 변혁을 겪게 된다. 즉 일제의 민족정

51)박복선, 중국의 평생교육 (서울: 선화, 1995), p.264-268

신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한글탄압이 심해지고 신식 사설학교가 탄압을 받아 폐교사태가 빈번해지자 서당은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국민의식 계몽기능을 맡게 되었고, 크고 작은 다양한 사회교육기관, 즉 변형된 서당, 야학, 사숙, 사설학당, 강습회 등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나타났던 사회교육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는 1952년 사회교육법이 성안된 것으로 1982년 12월 15일에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한국사회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50년대의 사회교육은 문자 그대로 기초교양교육이 사회교육 활동의 영역으로 각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 변모의 중요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

나. 성인교육을 통한 문맹퇴치와 한글보급

다. 공민학교와 고등 공민학교의 제도화

라.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의 추진

마. 농촌계몽 활동과 농촌문고 설치

② 평생교육과 계속교육(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1960년대 시작된 군사정권은 효율적 행정을 목적으로 사회교육사업 일부를 관주도 사업으로 변환하려는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나, 빈약한 예산과 지도기술상의 미숙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했다. 그러나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로 국민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농촌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70년대 사회교육의 활성화의 모태가 된 시기였다. 이 시대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시책에 의해서 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회교육형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과 농촌지도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사회교육시대였다. 새마을운동은 도 · 농의 문화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의식 활동으로 연계되었고,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평생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산업체 부설학교 특별학급, 위탁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이 새로이 사회교육 일선에 등장하게 되었다.

③ 평생교육의 확립(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1980년 10월27일 헌법 제 27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1982년 12월 31일 30여 년 동안 수정되어 오던 사회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 시기에는 여가선용 및 교양에 관한 것,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사회교육의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소원해졌던 문맹퇴치 운동이 사설기관의 주도하에 소규모로 실시되었고 이는 90년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80년대의 사회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계속되는 시기로서 학원이 사회교육의 독특한 형태로 작용했으며, 인력 개발형, 여가선용 그리고 시민의식계몽 등이 사회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활동, 노인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 여성권익을 옹호하는 활동, 자연환경 보호의식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 시기이다. 또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사내 교육체계가 확립되고, 재교육(Reeducation)과 평생교육, 민간 및 공공사회교육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3년 8월 10일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탄생하여 그 해 9월 5일 ‘교육개혁 종합구상안’을 11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중 사회교육 관련 항목은 ‘사회교육 및 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이다. 그 후 같은 해 5월 31일에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서 9개의 주요개혁과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5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개혁방안에서 사회교육에 관한 항목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기반구축’이라는 조항과 하반기 추진과제로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직업 기술교육 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가고 그에 상용한 법적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1997년6월2일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이 대통령 자문인 교육개혁위원회 소속 평생학습 전문가들에 의해 완성되었고 이 시안을 바탕으로 1997년 12월 입법 통과되었으며, 그 파급효과가 앞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전략은 학교교육시대에서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의 공존시대로, 다시 평생교육시대에서 평생학습시대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기관 중심의 변화도 중요하지

만, 민간 중심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체제도 매우 중요하다.

평생교육의 확립시기에 기초를 이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의 헌법 조항 신설과 평생교육법 체제의 정비

나. 방송태학의 발전과 개방대학의 신설

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의 실시

라. 대학의 평생교육

마. 각종 문화센터나 회관의 평생교육

바. 기타 사회교육 시설의 확충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 및 정책

①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전국에 걸쳐 수많은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이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그 본질적 특성 때문에 학교교육과는 달리 주관하는 단체와 기관, 교육목적, 내용, 방법 및 시설이 지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정하는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많은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을 분류하는 방법은 관점 내지 준거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으나 교육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1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공무원 연수원 및 공공 연수기관, 직업훈련기관, 산업교육 연수기관, 학원과 일반 평생교육기관, 학교중심(부설)평생교육기관,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 청소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여성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노인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단체, 문화시설 및 단체중심 평생교육기관, 상담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 단체

②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정책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정책은 문교부와 교육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주 바뀌었다. 그러면서도 사회 교육만을 전담하는 독자적인 국수준으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채 때로는 문화, 예술,

체육과 때로는 국제교육이나 해외동포교육, 또는 직업교육이라 하여 전문대학의 학무나 행정까지 포함하거나 덧붙이는 등 교육부에서 영세한 주변적인 기구로 전전하다가 최근에 평생교육국에 이르러 겨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진흥하며, 평생교육제도를 관리하는 중심적 부서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주는 일은 교육선진국의 경우 정부 정책추진의 기저를 이루어 가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사, 공무원, 기업체 종사자 등 직장인의 고등교육 수준의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의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성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은 평생교육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데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1999년 8월 31일 제정·공포된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적 틀이 새롭게 갖추어 지게 된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고등교육수준의 교육시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제도가 도입되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제가 강화되면서 평생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 방법 또한 한결 다양화, 편리해짐으로써 국민들의 학습관과 학습자의 선택권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생교육법의 시행은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우리사회를 형식적 학력위주에서 실질적 능력위주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면서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자질 향상이라는 21세기의 국가적 목표 달성도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국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에 한 걸음 성큼 내딛는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④ 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여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그 기본 방향으로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다.

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된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나. 교육개혁의 비전인 21세기의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건설

다.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의 조성

라.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 의욕 고취

마.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유도

바. 성인교육 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정책지원 강화

아. 민간자본을 통한 지식 · 인력개발사업 육성

⑤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사회교육법에는 중 · 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인정 교육 시설만 운영되었으나, 평생교육법에는 사내대학, 원격대학, 문하생제도 등 전문대학 및 대학과정으로 고등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운영으로 학습자의 학습기회를 대폭 확대시키고 있다. 사회교육법에는 일반사회교육시설과 종합사회교육시설이 학원과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여 이를 평생교육법에서는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사부설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원격교육시설, 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전담기구로 평생교육센터, 평생 학습관,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교육 용어는 식민지 국민의 의식을 교화시키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학자와 사회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사회교육법'은 일본과 인도에서 사용되고 다른 국가는 대부분 성인교육법, 계속교육법, 직업교육법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교육이 공급자를 위주로 한 교육적 측면을 중시한 점에 반하여 평생교육은 수여자 입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화 학습을 중시하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변경하여 시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위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을 고찰해 보았는데, 급속하게 변해가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독특한 국가적인 전략들로 평생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고 교육기회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시설뿐 아니라 각종 사회시설을 더욱 많이 개방하고 체계적인 연수 체제도 갖추어 나가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Ⅲ.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특성

1.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미술관 교육의 개념 및 특성

(1)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미술관교육의 개념

1) 미술관의 개념

미술관(Museum)이란 용어는 세계최초의 박물관으로 불리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에 창설된 Meseum을 그 어원으로 하고 있다.[52] 이 Meseum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화예술의 신인 Mese를 경배하기 위한

52)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1972), p.41

신전으로서 기증물이나 상납물이 모아져 박물관 수집품의 기원이 되었고, 문학 및 예술을 배우고 전파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박물관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술관은 사전적 의미로 "미술박물관의 약칭으로, 회화 · 조각 · 공예품 등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감상 · 계몽 · 연구를 위해 전시하는 기관"으로 명칭 되어있다. 즉 미술관은 미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수집하는 전문 박물관의 하나로서 '미술 박물관'의 준말이며, 넓게는 '박물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미술관에 대한 개념 정의는 국제박물관협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53]와 영국박물관협회 (The Museum Association), 미국박물관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을 차별하여 명시하고 있다.

국제 박물관(ICOM) 초대회장 조루즈 앙리 리비에르는 미술관/박물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학고 있다.

"지식의 증대, 문화재와 자연재의 보호교육,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자연계와 인류의 대표적 유산을 수집, 보존 전달 및 전시를 행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2) 미술관 교육의 개념

미술관 교육은 문자 그대로 '미술관'과 '교육'이라는 별도의 영역이 합쳐져서 미술관이 갖는 고유의 속성과 교육의 기본성격이 결합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미술관 교육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미술관에서의 모든 활동, 즉, 소장품 전시,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특별행사 등을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이다.[54]

미술관 교육의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정의들을 살펴보면 AAM(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에서는 미술관 교육을 미술관 구조 내에서 이루어

---

53) ICOM 국제발관 협의회, 1946년 설립, 박물관의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발물관 간의 교류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54)이윤선,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9), p.9

지는 학습이라고 하였으며 영국의 아일리 후퍼 그린힐(E. H. Greenhill)[55]은 미술교육을 미술관에서의 모든 활동(전시, 교육프로그램, 특별행사)은 교육적 목적을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미술관 교육이란 미술관, 교육, 그리고 미술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로 미술관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작품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이나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교육 내용도 그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미술관 교육은 전문가들에게만이 아닌 비전문가들에게까지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개방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미술관이 하나의 미술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미술관의 교육이 미술관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교육기능이며, 미술을 통한 일반 대중의 정서교육이고, 미술을 매체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의 실제 작품들을 교육적 잠재력의 근원으로 하여 학습자를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미술관 교육은 다양한 미술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따라 그 철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미적 · 문화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미술관 교육의 특성

미술관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교육적 장임에도, 미술관 담당자, 미술교육학자, 미술이론가 등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미술관 교육에 관한 이론적 합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점차 구체화 되고 있으며, 학회 및 컨퍼런스를 통한 학문적 논의나 기관간의 협의와 교류를 통해 합의점을 향해 가는 지점 중에 있다고 볼

55)Hooper Greenhill.E.1992, Museum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Routledge,London

수 있다. 미술관 교육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시물 기반 학습

미술관 전시회의 예술작품들은 맥락적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즉, 대상물들은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의 형태로 위치되어 진다. 특히 동시대 미술관에서의 전시란 기획자 및 큐레이터에 의해 기획되어 주제의식 또는 의도된 맥락 속에 재배치된다. 즉, 미술관 안에서 전시물은 본래 사용되어 졌던 맥락에서 벗어나, 새로운 맥락 속에 위치하게 된다. 미술관 교육의 특징은 관람자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전시물, 즉 실제 작품(object)을 상용한다는 점이다. 도판이 아닌 실제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실물 학습 (authentic objects based learning)이 가능한 장소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이 미술관 교육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으며 미술관 교육의 이론 및 방법론 또한 이를 전제로 한다.[56]

② 총체적 경험으로서의 학습

미술관에 가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얻고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미술관에서 관람자들이 얻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넘어선 독특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으로, 관람자들이 미술관에서 겪는 총체적인 체험 모두가 미술관에서의 교육을 형성한다. 이는 미술관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미술관 교육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접근방식이다.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들의 일련의 연속성 안에서 형성된다. 전시를 통하여서는 관람객이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을 꺼내고, 이를 현재의 전시장 내에서의 활동들을 통해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안에서 진정한 교육적인 경험이 형성된다. 즉, 교육적인 경험은 개인에게 있어 내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데, 나아가서 이는 관람객이 전시를 관람하는 과정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인식의 발달과도 연관되는 것이다.[57]

③ 참여자 중심 교육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가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강좌 형식으로 진행하는

---

56)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예경, 2001), p.13

57)유채린, 「관람객 연구를 통한 전시의 학습효과 평가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p.20-21

미술관 교육은 전시회 관람을 통한 미술관 교육보다 이용자의 적극적 의지와 선택에 의해 참가 여부가 결정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책임과 적극성,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가하며, 따라서 미술관 ·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참여자 중심으로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58]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자들에 대한 요구조사 및 학습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미술관 교육의 필요성

미술관의 교육적 측면 때문에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의 소통의 중요성과 최근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관람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술관 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 유형도 변하고 단순한 감상이 아닌 체험적 전시의 형태로 변하며 전시 안에서 추가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술교육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크게 가능성, 창의성, 이해 중심의 미술교육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해 중심 미술교육이 중시되는 현대 흐름에 발맞춰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각 미술관이 보여주는 전시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미술문화에 대한 질 높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교육 영역으로 눈을 돌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59]

미국의 미술교육학자 E.W 아이스너[60]는 학교에서 미술교육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고, 미술 교육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업적에 의미 있게 접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류의 풍성한 문화를 알게 하거나 혹은 감수성, 상상력, 판단력을 개발하는 것은 교육의 지엽적인 목적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61]

---

58)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2005), p.21

59)황나래, 「미술관과 학교 미술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9), p.10

60) Elliot W.Eisner 엘리어트 아이스너는 미국의 미술교육계를 대표하는 연구자의 한사람으로 커리큘럼의 개발,교육평가,미술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전미 미술교육 협회인 NAEA와 국제 미술교육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세계 미술교육계에 가장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학자라고 평가된다.

일찍이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경우, 패커드 보고서(Packard Report)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전시장에서 단순히 작품을 대중에게 보인다는 수동적 개념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는 대중과의 직접적 유통을 시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로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미술관을 교육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독일 슈프링겔(Sprengel) 미술관의 큐레이터 겸, 미술교육자인 리벨트(Dr. Liebelt)는 "첫째, 교사들이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미술관에 데리고 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말로만 전달했던 것을 미술관에 아이들을 데려옴으로써 그 작품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 정의 일부를 미술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처럼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감성적인 능력을 키워주고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고 한다.[62]

이렇게 미술관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1970년대부터 미술교육에서 미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표현보다 이해 감상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E.W. 아이스너는 창의력 향상에만 관심을 두었던 미술교육에서 이해 중심 미술교육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미술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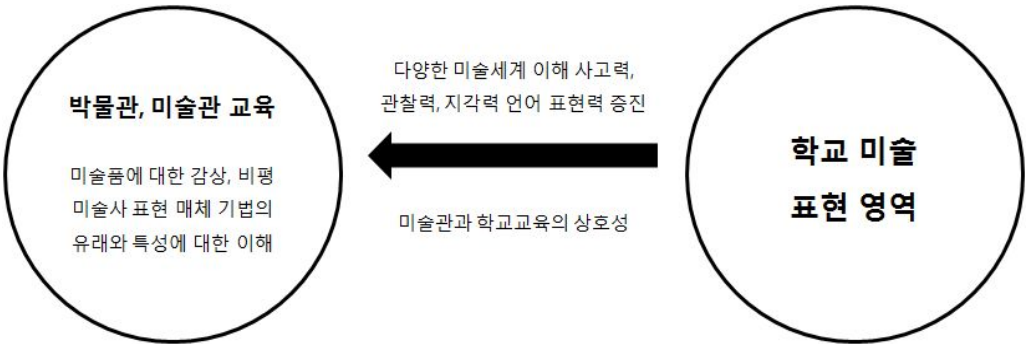
둘째, 6차 교육과정 개편이후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견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많은 부분에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자료들이 참고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박물관과 미술관의 고유한 특징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술관과 학교 미술교육의 연계성은 학생들의 미술품 감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63]

---

61)<Elliot W. Eisner 김인용,김대현 학문기초 미술교육운동, (학지사, 1995), p.23
62)이미영, 「미술관에서의 미술교육 연구」,(충남대학교, 2000), p.20
63)이원영, 『미국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그 교육적 의의』, (1997), p.1-2

<그림-2>미술관과 학교 교육의 상호성



미술관의 미술 활동을 크게 '작품 제작', '자기표현', '작품 감상 및 비평' 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관에서 작품을 이용한 학습안을 마련하여 직접 작업하는 '작품제작'을 통해 작가의 의도나 작업 과정, 조형 원리, 조형미를 배울 수 있다. 미술에 있어 학생들은 참여 의식과 함께 호기심을 유발하여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발견함으로써 배운다.

예를 들면 뉴욕의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의 빅터 다미코는 아동과 미술품이 미술관 교육의 중요 기능으로 보고 '현대미술관의 아동 축제(Children's Carnival of Modern Art)'라는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들에게 작업실에서 동기부여와 영감을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은 존 듀이(John Dewey)[64]의 실용주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듀이는 예술에 있는 모든 경험은 통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완성되어 진다고 보았다.

둘째, 그림이란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자기표현'이 중요하다. 예술이란 단순히 사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통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감정, 더 나가서는 사물의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단순히 사물을 묘사하는

64)John Dewey(1859-1952)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미네소타,미시간,시카고 컬럼비아 각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고'전국교육협회'명예회장을 지냈다.

과정에서 벗어나 조형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자기표현을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술관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작품 감상'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미술 비평도 겸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의 토마스 먼로(Thomas Munro)[65]는 미술관 교육자의 역할은 중개자인 동시에 촉매자이며, 교사라고 보았다. 그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개개인에게 미술관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알게 하고 복잡한 미술품의 부드러운 특성과 함께 세부적인 것을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술품에 대한 미술사적인 것은 미술관 밖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미술관에서는 개개인의 작품을 보는 관점을 중시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작품을 본 후 느낀 소감을 글로 적게 하거나 스케치를 하게 함으로써 다음 실기 시간에 응용하도록 하거나 작품에 대한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미술 비평도 병행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미술관에서의 창의적인 표현력 이외 미학적 교육까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었다.[66]

3.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미술관은 미술작품을 통해서 보다 쉽고 친근하게 미술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문화 공간을 이용하여 미술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미술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관이라는 문화공간을 통해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내용을 말한다.[67]

일반적으로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장소에 따라 분류하면 관내 교육과 관외 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관내 교육은 강연이나 강좌, 세미나 등의 강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시물에 대한 안내 및 해석인 가이드 투어(Guide Tour) 혹은 셀프 가이드 투어 (Self-Gide Tour)와 전시실 설명, 체험 학습

---

65)Thomas Munro, 영국의 의사이며 아마추어 화가 런던에서 출생, 부쉬에서 사망,터너,카틴을 비롯하여 많은 화가들을 옹호함

66) 예진희 「우리나라 미술관 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21-22

67)신혜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원대학교, 2008), p.8

위주의 워크숍(Work shop)등으로 구성된다.

관람객 계층별로 분류하면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청소년 강좌, 어린이 프로그램, 주부강좌, 노인대학, 관광안내원 강좌), 가족단위 프로그램, 학교 연계프로그램,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안내원 양성교육과 자원봉사자 양성, 박물관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그 밖에 지역 및 생활 문화 환경에 따라 도시 · 농촌 · 어촌 · 산간 · 도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미술관 전시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내, 좌담, 강연, 강의,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개설 운영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전문가의 설명, 이론 중심의 대화가 특징이며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된다.

이렇듯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미술관에서 행사와 이론 강의와 실기를 겸한 교육 내용을 말한다.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도 학교 교육의 미술교육을 보조, 대신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1) 전시 관련 프로그램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중 전시 관련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기획전시나 상설 전시 등 예술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강연, 전시장 해설, 전시장 안내, 오디오 가이드, 심포지엄, 워크숍, 비디오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일반적 교육 프로그램

1) 독립강좌

독립강좌는 관람객과 미술관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시와는 무관하게 보다 폭넓게 예술을 접하고 취미활동과 교양적 활

동 지역 간의 연계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미술 아카데미 강좌,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학교 연계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전문인 교육프로그램(교사, 도슨트, 인턴쉽)행사의 페스티발-콘서트, 영화 연극, 특별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대여 프로그램 등이 있다.[68]

2) 미술 아카데미 강좌

요즘 대부분의 미술관에서는 미술 강좌의 하나로 미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미술관 마케팅 활동, 즉 미술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술 강좌는 미술관의 미술 아카데미 운영 방침에 따라 미술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인 이론 강좌와 실기 강좌로 나뉜다.

3)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미술관의 소장품을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펼침으로써 작품 감상 능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한 실기만이 아닌 작품 감상, 자기평가 등의 비평 능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술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술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색칠하기, 퍼즐, 퀴즈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미술관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창의성과 개발과 미술관이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라는 사실과 함께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준비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거나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처지는 학생이 생길 경우 계획에 맞는 진도를 나가기가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에 맞추어 준비물을 챙겨올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68)ibid, p.9

4) 청소년 프로그램

미래의 문화 예술 인구의 저변 확산이라는 미술관 교육이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비록 입시준비로 바쁜 학생들이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주지주의적인 현 교육 상황을 벗어나 실제로 체험해 보고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해 봄으로서 좀 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교육적 역할 면에서 보더라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69]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국 · 공립 미술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도 많이 미흡할 뿐 아니라 수업의 수준 또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미술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술관 자체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이를 통한 통합적 교육 효과를 이루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70]

5)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일반인은 의무적으로 미술관에서나 여타의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미술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나 전문가는 그들의 자주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관람자들이 전시물이나 작품을 감상, 향유하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어가며, 다음 미술관 방문이나 그 이외의 기회에 이와 같은 경험가 배움이 도움이 되는 일을 우리는 이 경우 넓은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제도권에서 말하는 정규교육 이외에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교양교육이다.[7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형태의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기의 주제 이외에 성인 및 여러 연령층을 고루 수용할 수 있고 평소 접해 보지 못했던 소재와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직접적인 문화예술 체험을 접하게 함으로써 더욱 미술관과 친숙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72]

---

69)이지현, 「국내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실태연구」 (창원대학교 2003), p.32
70)신혜진, 「미술관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활성화방안연구」 (서원대학교 2008), p.10-11
71)이지현, 「국내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실태연구」 (창원대학교, 2003), p.19

6) 가족 프로그램

온 가족이 휴일이나 주말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함께 가족 단위 별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프로그램은 다양한 관람객 계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73]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가족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프로그램은 아직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도도 많이 저조 한 편이다. 가족이 미술관에 찾아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만들기란 쉽지 않으며,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많지가 않다. 이러한 가족들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74]

7) 학교 연계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전시와 관련하여 학교 연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관과 학교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수업과는 달리 미술관 학습은 비형식적이며 자유롭고, 질 높은 정보와 발견, 도전,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유발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학교 미술수업이 형식적, 조직적인 것에 반해 미술관을 방문하여 생기는 배움은 비형식적이면서도 자유롭다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미술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이나 분야에 많은 시간과 내용들을 접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배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반 이상이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는 미술관들은 교사들에게 도록이나 슬라이드, 비디오 매체와 같은 교육용 자료를 지원하거나, 학교에 유물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미술교육에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75]

---

72)손지영, 「미술관의미술교육프로그램실태연구」 (창원대학교, 2005), p.27
73)이보아, 『박물관학개론』 (김영사, 2002), p.224
74)신혜진, 「미술관교육프로그램현황 및 활성화방안연구」 (서원대학교, 2008), p.11

8) 장애인 프로그램

자발적으로 박물관을 관람하기 어려운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에게나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 통역 전시 설명회를 제공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로 텍스트나 레이블을 별도로 제작하여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휠체어를 박물관 입구에 비치하여 관람이 쉽도록 배려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각 미술관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여러 행사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9) 전문인 교육프로그램(교사, 도슨트, 인턴쉽)

학문적 탐구를 위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미술이론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미술의 이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초 ·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미술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 지도 함양 능력 향상과 바람직한 미술문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이 매우 부진한 실태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원해짐은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문화 · 예술과의 친숙함을 쌓게 하고, 교양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을 배우게 한다는 것,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해주어 미래의 문화 · 예술 인구 저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미술관에서 도슨트 과정을 증설하고 계획함에 있어 미술관의 전문 인력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슨트 제도가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제도는 잘 운영만 하면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미술관의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다.

---

75)손지영,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실태연구」 (창원대학교, 2005), p.28

Ⅳ. 성인대상 미술관 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1. 성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사례

1) 성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이하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2011년 전국 문화 기반시설 총람을 바탕으로 오늘날 국내 미술관의 현황을 전문성과 대중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국내 미술관은 문화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표-2>를 보면 2011년 등록된 한국의 공사미술관 수는 총 145개로서, 미술관 수나 역사 등 전반적으로 서구 미술관에 비해 신생 미술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1979년 이전에 개설된 것은 3%에 불과하며 나머지 97%는 1980년대 이후에 개설되었으므로 대개 3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2005년 당시 등록 미술관의 수는 93개였으나 그 후 56%가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에 52개소가 새로이 개설되었다. 최근에 개설된 미술관의 비중은 미술관 수에서 65%, 소장품 수에서 80%, 연간 관람객 수에서 6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미술관의 양적인 팽창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2>국내미술관의 개관연도별 따른 미술관의 현황

개관 연도	미술관 수(개)		소장품 수 (점)		연간 관람객 수 (명)	
1979년 이전	4	3%	12.416	4%	842,000	7%
1980~1989년	8	6%	6,377	2%	1,572,568	13%
1990~1999년	38	26%	46,574	14%	2,048,079	17%
2000년 이후	95	65%	266,319	80%	7,512883	63%
계	145	100%	331,686	100%	11,975,530	100%

하지만 이런 양적인 팽창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에 편중되어 전체 등록 미술관의 43%가 수도권에 있으며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미술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

역의 편중은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미술관 관람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 상류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표-3>는 2011년 등록 미술관의 보유 소장품수와 연간 관람객수의 지역적 현황을 나타낸다.

<표-3>2011년 국내미술관의 보유 소장품수와 연간 관람객수 현황

지역	미술관수	소장품수	평균 소장품수	연관람객수	평균 관람객수
서울	32	128,157	4,005	4,166,184	130,193
부산	4	3,047	762	654,589	163,647
대구	2	151	76	20,000	10,000
인천	5	10,315	2,063	9,193	1,839
광주	6	23,986	3,998	281,860	46,977
대전	4	13,143	3,286	469,689	117,422
울산	-	-	-	-	-
경기	31	81,763	2,638	2,563,321	82,688
강원	8	3,537	442	220,609	27,576
충북	6	4,549	758	216,136	36,023
충남	6	9,146	1,524	551,778	91,963
전북	3	1,209	403	664,859	221,620
전남	12	13,942	1,162	157,147	13,096
경북	6	25,540	4,257	303,160	50,527
경남	7	7,691	1,099	250,897	35,842
제주	13	5,510	424	1,446,108	88,162
합계	145	331,686	2,287	11,975,530	82,590
수도권	68	220,235	3,239	6,738,698	99,099
지방	77	111,451	1,447	5,236,832	68,011
합계	145	331,686	2,287	11,975,530	82,590

미술관의 소장품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미술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장품 수의 기준을 2000점으로 보았을 때 16개 시·도 중 평균 미술관 소장품수가 2000점이 넘는 경우는 6개 지역(38%)이고 많은 지역의 미술관들이

2000점 이하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미술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미술관은 소장품의 양적인 측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 미술관의 경우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설립되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대다수 한국 미술관은 모더니즘 미술관의 성격을 결여한 채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관으로 성격을 규정받게 되면서 모더니즘 미술관에 비해서 수집이라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소장품을 보러오는 것이다. 미술관은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전시, 교육을 통해 관람객 서비스를 실천하고 문화서비스를 실현한다. 한국 미술관의 소장품 부족은 궁극적으로 미술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중성까지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표에서 지역별 연간 관람객 수와 평균 관람객수의 분포는 한국 미술관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연간 관람객의 수가 500,000명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으며, 100,000명 미만인 미술관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하루 평균 관람객이 300명 이하인 미술관이 전체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4>2012 국내 미술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설명	운영프로그램
성북구립 미술관	2012어린이미술관<오감Talk Talk>,7세유아 미술실기<연상놀이>, 어린이 미술실기<움직이는 드로잉>, 2012봄 탐방프로그램 <예술가의 길>등
서울시립미술관(본관)	드로잉&수채화실기, 마티네 강좌<미술과 만난 근대>, 어바웃 디자인, 찾아가는 미술감상 교실 청소년 강좌, 엄마와 함께 하는 공작실
밀알 미술관	40~50대와 함께하는 교육공간, 서예반 지도<신두영>
포스코 미술관	2012월요미술아카데미 <피아노가 있는 미술사, 20세기 현대미술>
헬로우 뮤지엄 어린이 미술관	체험 관람 교육, 아트랩, 스텝업, 쉽터 청소년들의 시각예술, 학부모 강좌, 교사연수, 예술강사 연수, 전문인력 교육
치우 금속 공예관	2012 치우금속공예 스튜디오<주물기법으로 쥬얼리 만들기>, 어린이 만들기 교실 <말랑말랑 은점토로 만든 쥬얼리>

소마 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시민참여 문화행사 7개 외 33
한미 사진미술관	camera talk, camera craft, camera wark, camera master, photo kids, photo teens, public program, 패트론 프로그램 등
삼성 미술관 리움	패션&아트, 한국근현대사와 시각문화, 아시아 현대미술의 오늘 그리고 내일, 미술관 밖 한국 미술사, 미술+science, 2012하반기 리움턴즈 등
금호 미술관	문화예술 아카데미, 화요아카데미 강좌, 수요강좌, 목요강좌
대림 미술관	북유럽의 삶, 건축 디자인 이야기, 북유럽의 공간미학 여행과 그 안의 자유, 북유럽의 디자인에 놀란 10가지 순간, 북유럽 디자인 등
사비나 미술관	재미있는 뇌 속 풍경여행, X선으로 만드는 신기한 이야기, 보고 연결하고 소통해요, 런치 프로그램 , 브런치 프로그램, 전시해설 프로그램
상원 미술관	알록달록 재미난 염색놀이, 내가만든 우리가족 티셔츠, 똑딱똑딱 내가 꾸민 닥종이로 액자 시계 만들기, 비누공예교실, 캐릭터토이 창장교실
성곡 미술관	김범석 <산전수전>-어린이 체험프로그램 , 언어와 시각예술의 융합
아르코 미술관	2012 어린이 건축학교
아트 선재 센터	BTA(Brain children Through Art), 청소년 도슨트 프로그램
아트센터 나비	엄마와 함께하는 Teach DIY
토탈 미술관	토탈 미술관 아카데미, 주말 N 미술관
환기 미술관	Art Talk, 꿈다락 토요문화 차오름 프로그램,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부암동 미술산책, 환기 인문학 특강, 페이퍼 집 꾸미기, 부암동 미술나들이등
서울대학교미술관	동아시아 근현대 문화 예술 강좌, 내몸의 Healing Time, Zoom in zoom out, 귀를 기울이면, Moa 어린이 미술 학교 등
부산시립미술관	비엔날레와 현대미술, 도시와 현대건축, 예술창조의 메카니즘, 부산현대미술의 현장, 현대미술과 동양대학의 만남, 한국 현대미술의 미의식, 현대미술과 미술관, 피아노가 있는 서양 미술사 등
킴스 아트필드 미술관	금정산성 지도만들기, 나의 이야기 액자 만들기
송도 디오 아트센터	드로잉 실기, 수채 유화 실기, 그리기 체험, 미술사와 감상, 현대미술이야기, 미술품 투자관

광주시립미술관	“톡톡, 현대미술”,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 “해피샤워 아이리더”, “자연테마놀이, 오르프 아마데우스클레스, 이데아스쿨 도형놀이 등
무등 현대미술관	Come together 조형예술학교, 자연재료를 활용한 나만의 학용품 만들기, 산아래 예술서당 이야기, 작가의 작업실 탐방, 왼발 한발앞으로
우제길 미술관	KB국민은행-박물관 노닐기, 2012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차오름 프로그램>, “생생 큐레이팅”
조선대학교 미술관	“꼬마 아틀리에”, “작가와 함께하는 스케치 여행”, “찾아가는 미술관”
대전 시립미술관	판화2<목판화>, 한국미술사, 꼴라 그라피와 에칭, 에너지를 사용한 비행기 만들기, 백남준 발칙한 상상, 이중섭의 열정과 투혼 등
국립현대미술관	이수경 작가 전시연계 강연, 덕수궁 미술관<꿈의 시>, 청소년 도슨트 체험프로그램, 근현대사 미술사 아카데미,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장애아 미술관 소풍, 문화 소외지역 대상 미술관 초청 교육프로그램 등
경기도 미술관	각양각색 미술사
백남준 아트센터	브런치 예술강좌 “지금현대미술”, 달나라 백남준, 노스텔지어는 피드백의 제곱,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미디어 북클럽 등
이천 시립 월전 미술관	이천 달빛 탐험, 민화 범상치 아니하다, 중국회화의 흐름과 미
가일 미술관	2012 뮤지엄 페스티벌, 나의 마음을 그려봐요, 미래의 기억, 가지 않는 길, 나는야 공간 재단사
영은 미술관	주말 공방 체험, 전시연계감상<도예, 유리, 염색, 비누>, 도예·유리체험, 창의 체험 프로그램, 도자기 공예 등
보름산 미술관	어서와! 우리는 보름이와 산이야, 창의 미술학교, 칠보공예수업, 필그림챔버오케스트라
모란 미술관	반성(reflection)전시연계, 그림을 담은 그릇, 2012 예술체험 프로그램
서호 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마가 미술관	2012한지캐스팅 교육, museum festival, 파피스트리, 용인교육 레인보우 클러스터 교육
하슬라 아트월드 야외 미술관	체험프로젝트<나만의 티셔츠,글라스페인팅,도자기접시그림,나만의 머그잔 만들기,유리소품, 양초만들기>창작조형체험
석봉 도자기 미술관	체험학습<물레체험, 코일링, 접시그리기>문화학교<도예실습교실>여성대학도자기 교실

청주시한국 공예관	시민공예 아카데미<도자공예, 한지공예, 천연염색, 규방공예>
스페이스 몸 미술관	2012창의체험<미술관으로 간 생각이>,2012말을거는 몸,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미술관은 살아있다”
당림 미술관	아크릴화 그리기, 석고조각, 연필꽃이, 지판화
임립 미술관	창작아카데미<조형체험>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현대미술의 이해, 어린이 아틀리에, 문화소외 지역 초등교육, 꿈틀꿈틀 미술관,2012 주중체험<액자꾸미기,풍경꾸미기, 시계만들기 등>
전라남도 옥과 미술관	2012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남포 미술관	회화 교실<한국화, 서양화>, 어린이 미술체험
포항시립 미술관	poma토요키즈프로그램“미술관에서 놀토”,poma아카데미<우정아 교수의 미술산책>엄마와동네 한바퀴,어린이어무니,청림풍경그리운포항 등
시안 미술관	2012년 겨울시즌 교육프로그램, 2012뮤지엄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2012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경남 도립미술관	2012 어린이 미술체험 미술관전시연계,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교실,‘미술관 교양대학’new 미디어+art의 이해
(재)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트김해미술관	해외건축도자작가‘빌마빌라베르데&후루고리히로시’,컨템포러리한옥전 연계한옥 워크숍<한옥의 오늘과 내일>컨템포러리한옥전 연계미술행사<작가와의 대화>2012전시감상 교육프로그램 등
창원대산 미술관	2012대산미술관과 함께하는 공예미술체험교실, 2012 stx조선해양과 함께하는 다문화 공예미술체험교실등
통영옻칠 미술관	옻칠회화,나전,소목공예 체험활동,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제주 현대미술관	예술인 마을 찾아보고 그림 그리기, 한여름 아트캠프
대구시립 미술관	d am's 렉처, 청소년 대학생 예술강좌,클로즈업 한국의 예술가, 만나보고싶은사람,미술교육인강좌,색다른 만남 미술관 그림일기 등
인천아트 플랫폼	숨은 고양이와 아기고래 창작놀이터, 토요창의 예술학교, 이얍! 신나는 예술캠프 학교연계프로그램 등

<표-5> 미술관의 성인프로그램 수 현황

미술관 총수	145
홈페이지 확인 가능 미술관 수	83
홈페이지 확인 불가능 미술관 수	62
성인프로그램 운영 有 미술관 수	30
성인프로그램 운영 無 미술관 수	53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미술관 수	63

<표-4>은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미술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5>에서는 총 145개의 한국 미술관 중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63곳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반수이상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성인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30곳으로 전체 미술관 중 20% 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미비할 뿐 만 아니라 미술관 운영 주체의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의 미술관은 에듀케이터가 중심되어 상류층이나 전문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하던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육의 대상이 다양화되고 학습자 중심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한국의 미술관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관람객 확보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 인식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모더니즘 시대의 에듀케이터의 전문가 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후진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미술관이 전문성과 대중성 두 측면에서 모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서 서술한 한국 미술품의 소장품, 관람객 현황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내 미술관의 이러한 현황은 미술관 관련 정책, 운영과 조직 증 미술관 내외 환경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공립미술관의 경우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으나 조직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합리성이 부진하여 미술관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미술관법이 개정되면서 급증한 사립미술관은 국내 미술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업미술관을 제외한 개인이나 범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미술관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소장품과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한국 사립미술관의 전문성 확보가 지체되고 있다. 통계에서 나타난 사립미술관들은 미술관 협회(ICOM)에서 규정한 기본 적인 전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관람객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속에 있다.

<표-5>의 통계는 홈페이지의 검색 결과로 이루어 졌으며 홈페이지를 개설되지 않은곳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알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사례

(1)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과 세계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순수미술 발전을 진작 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사용자 요구를 수렴하여 현대 미술의 조사 연구, 미술작품의 수집 및 보존, 미술관련 교육 등 국민들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문화 복지시대를 맞이하여 미술을 통한 국가브랜드 창출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현대 미술의 저변확대 및 국제 교류를 통한 우리 미술문화의 세계화를 촉진 시키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민이 '현대'라는 시점에서 기대하는 미술의 상황성과 현시대적 경화를 대변하여 보여주는 미술관으로서 한국의 현대미술을 국내외에 대표하여 보여주는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성경을 가진다.

국립현대의 교육활동은 1981년 사단법인 현대 미술관회를 발족시켜 현대미술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사회의 사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는 미술관의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국립현대 미술관은 시대적 요구와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국민들에게 올바른 미술문화의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대인의 미술에 대한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올바른 미술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 운영취지를 가지고 있다.[76]

76)http://www.moca.go.kr

<국립 현대 미술관 성인 교육프로그램>

[근현대 미술사 아카데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론 및 강의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근현대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한 미술사 강좌를 마련하였다. 10주 동안 진행될 강좌는 근현대 미술에 있어 주목할 만한 작가를 시대순 으로 재조명하도록 하고 동서양이 미술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77]

<표-6>근현대사 미술사 아카데미

일정	차시	일자	강의주제
9월~11월	1	9월 14일	서양근현대 미술의 흐름
	2	9월 21일	폴 세잔느
	3	9월 28일	반 고흐
	4	10월 5일	바실리 간딘스키
	5	10월 12일	파블로 피카소
	6	10월 19일	마르셀 뒤샹
	7	10월 26일	르네 마그리트
	8	11월 2일	잭슨 폴록
	9	11월 9일	쿠사마 야요이
	10	11월 16일	앤디 워홀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 건축의 문화예술적 조명을 주제로 한 강좌
- 공공미술, 건축등을 중심으로 한 미술의 전반적 내용
- 연속적인 이론 강좌를 통한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도출

77)ibid

<표-7>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차시	일자	강의내용
1	9월 12일 (수)	건축의 문화예술적 가치 건축은 미술과는 서로 분리된 장르로 간주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건축과 미술 간의 이와 같은 상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본다.
2	9월 19일 (수)	건축의 물질과 빛 미술품을 건축물의 외벽 등에 건축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이 사례들을 통해 이와 같은 건축의 예술적 확장에 대해 살펴본다.
3	9월 26일 (수)	미디어 아트 매개체로서의 건축물 건물의 외벽에 LED를 설치하거나 빔 프로젝트로 투사하여 미술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 주요 사례들과 함께 학습한다.
4	10월 10일 (수)	미술 작품을 통한 건축물과 시민의 소통 좋은 미술 작품을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친밀감을 제공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5	10월 17일 (수)	미술 작품을 통한 기업과 건축물 이미지 제고 기업 건물 내에 미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고객들의 방문이 증가하여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2)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은 1988년 개관한 서울을 대표적 공공미술관으로서 전문성과 대중성이 함께 하는 열린 문화 예술 공간이다.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 노력으로 "밀레", "샤갈", "피카소", "모네", "반 고흐", "퐁피두", "르느와르", "앤디워홀" 등 세계적인 명작들의 특별전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그 회를 거듭하며 세계적인 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City_net Asis'전, '미술관 봄나들이'전, 그리고 미술의 시대적 흐름을 짚어가는 '한국 추상회화, 서울 미술대전 구성회화전 등 다양하고 알찬 기획 전시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람객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다양한 계층의 미술에 대한 학습욕구에 부응하며 작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 미술 인구 저변 확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미술 강좌를 시작으로 장애아동 미술교육,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국내 미술관 최초 찾아가는 미술 감상 교실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미술 강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78]

<서울시립미술관 성인 프로그램>

[시민미술아카데미]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미술아카데미는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 전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계층과 함께 미술문화를 나누는 열린 미술교육을 지향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강좌 운영으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공공미술관으로서 미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회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79]

---

78)조희윤, 성인대상 미술관 전시연계프로그램 현황 연구 (충남대학교, 2010), p.93
79)http://sema.seoul.go.kr

<표-8>[2012년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A]

과목명	담당 강사	과 정	요일, 시간, 강의실
드로잉-수채화	이상희	초, 중, 고급, 일반	화요일, 19:00~21:00, 본관 2강의실(지하B1)

강의 목표 및 개요	강의실에서 표현 가능한 이미지(정물,인물 또는 풍경사진)를 선택하여 스스로 회화작품을 완성시킨다. 각 진행 과정별로 드로잉과 수채화로 채색하여 완성시킬 수 있다.
강의 진행방법	드로잉과 수채화를 중심으로 12주간,2~3점의 완성작을 만들어본다, 8절정도의 크기의 드로잉과 수채화를 투명기법과 불투명기법강좌의 특성상 그릴 대상을 이미지로 미리 준비해온다. 각 과정별 개별 및 그룹지도- 6주차,12주차 작품평가

[강의일정]

날 짜	강의주제		내 용	수강생 준비물	교무 준비 사항
9월11일	오리엔테이션		강사소개, 강의소개, 강의 계획서 및 진행 방법 설명	노트와 필기구	프로젝터
9월18일	드로잉	드로잉이란?	기본 정물 (구도. 스케치.명암표현)	드로잉 도구와 화지	
9월25일		다양한 드로잉	밑그림 스케치 (구도) 재료와 사용법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3컷 이상	
10월2일		휴 강			
10월9일		구도/스케치	묘사와 마무리요령	“	
10월16일	수채화 1	채색기법	밑그림 스케치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3컷 이상 및 수채화도구	
10월23일		다양한 기법	과정별 채색방법	“	
10월30일		묘사법	묘사와 마무리/전체작품평가	“	
11월6일	수채화 2	투명/불투명기법	작품의 제작요령 스케치	“	
11월13일		표현기법	중간과정 채색법	“	
11월20일		마무리 요령	채색의 효과적 마무리 요령	“	
11월27일	정리 및 총평		전체작품 마무리와 평가		

<표-9>[서울시립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 B]

과목명	담당강사	대상	요일, 시간, 강의실
2012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연계기획강좌 : 뉴미디어 아트 따라잡기	유진상, 서동진 서진석, 김남수 박만우, 이원곤	주부, 일반인	05/08 ~06/29 화요일, 14:00 ~ 16:00, 세미나실

강의 목표 및 개요	시립미술관에서는 국내 미디어 아트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론가/전시기획자들과 협력하여 8주 동안의 미디어 아트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9월 제 7회를 맞는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미디어시티 서울 2012)에 앞서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한 시민 대상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수준 높은 참여자를 미리 양성하는 관람객 개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디어아트의 역사를 되돌아봄과 동시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와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을 소개하고 관련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 할 것이다. 2012년 5, 6월 동안 진행될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비엔날레의 총 감독인 유진상을 비롯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 아트 이론가와 기획자들이 차례로 강의를 맡아 전체적으로 다양한 관점과 스펙트럼을 담보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진행방법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한 멀티 미디어 강의

[강의일정]

날짜	강의주제	수강생준비물	교무준비사항	비고
5.08	미디어 창작공간의 확장과 전시유형	노트와 필기구	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마이크	서진석
5.15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와 매체의 다중성	``	``	서동진
5.22	사운드아트와 이동극장	``	``	김남수
5.29	동시대미술과 미디어아트_창작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소들	``	``	유진상
6.05	미디어 아트의 확장 가능성: 백남준을 중심으로	``	``	박만우
6.12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방식	``	``	박만우
6.19	미디어와 리얼리티 1 : 일원화와 이중성	``	``	이원곤
6.26	미디어와 리얼리티 2 : 가상공간과 가상현실의 역사	``	``	이원곤

<표-10>[2012년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C][80]

과목명	담당강사	과정	요일, 시간, 강의실
여성과 미술	양 은 희	일반	금요일 11:00-13:00

강의 목표 및 개요	미술의 역사에서 유명한 여성작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40여 년간 여성학자들에 의해 여성작가 발굴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발굴된 여성작가들과 주목할 만한 여성작가들의 삶과 예술, 작품에 나타난 그들의 꿈과 야망, 그리고 절망과 극복에 대해 살펴본다.

[강의일정]

날짜	강의주제	내용	학생준비물	교무준비사항
3월 9일	미술사 속의 여성작가	영웅적인 여성 이미지를 그려낸 겐틸레슈키, 앙귀솔라 등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길을 걸은 작가 이야기	노트와 필기구	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마이크
3월 16일	근대여성과 여성작가	마리 카사트 등 인상주의 서클과 여러 아방가르드 미술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작가의 작품 이야기	노트와 필기구	``
3월 23일	초현실주의와 여성작가	메레 오펜하임부터 프리다 칼로까지 다양한 상상력을 발했던 작가들 소개	노트와 필기구	``
3월 30일	추상미술과 여성작가	20세기의 꽃 추상미술을 통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냈던 작가들 소개	노트와 필기구	``
4월 6일	페미니즘과 여성작가	주디 시카고, 미리얌 샤피로 등 선구적인 페미니즘 작가 소개	노트와 필기구	``
4월 13일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작가	앤 해밀튼, 제니 홀저 등 새로운 미술의 지평을 열어가는 작가 소개	노트와 필기구	``
4월 20일	환경, 대지미술과 여성작가	마야 린 등 자연공간을 품으며 작업하는 여성작가 소개	노트와 필기구	``
4월 27일	아시아의 여성작가	야요이 쿠사마, 요코 오노, 이불 등 현대미술을 주도해 온 여성작가 소개	노트와 필기구	``

80) www.sema.seoul.go.kr

(3)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욕을 증진시키고 친숙하고 열린 미술관으로의 정착과 미술연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카데미는 실기강좌와 미술관학 강좌 그리고 어린이 미술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상록전시관 인문학강좌>
[2012년, 인문학으로 문화를 읽는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 인문학강좌는 2010년「현대미술과 인문학」이라는 타이틀로 출발을 한 이후, 올 해 세 번째 기획을 하게 되었다.
공립미술관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욕을 충족시키고자 개설한 인문학강좌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친근한 문화교육강좌로 거듭나고 있다.
2012 상록 인문학강좌는「인문학으로 문화 읽기」라는 주제로 영화·문학·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비평가, 예술인 및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동양화의 맛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조송식 교수(조선대)의 첫 강좌를 시작으로 박천남(성곡미술관 학예실장), 최영미(시인), 윤범모(미술평론가/교수), 한창호(영화평론가), 박만우(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임철우(소설가) 등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의 강좌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중국 예술인 2명을 특별 초빙하여 광주비엔날레 기간인 9월과 10월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동·서양을 통해 인간 만물의 근본인 로고스나 도(道)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는 시대의 반복을 거치면서 삶의 태도를 이야기 해왔지만, 21세기의 다양한 문화현상 앞에서 우리의 신념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뒷걸음질 치고 만다.
사회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개개인의 정서와 삶의 정체성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통섭이 강조되고 인문학으로 해결 방향을 찾고자 하는 요즈음,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강한 정신이나 도덕적 태도, 이념보다도 예술에서 비롯된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 한다.

고정적으로 방송되는 TV프로그램 중 하나가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묻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흥미진진한 세계 구석구석의 다양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생활의 지혜를 문득 깨닫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대입해 보기도 한다. 이 처럼 인류 역사의 결정체인 문화는 직접적으로 인간 삶의 모습을 읽어 내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덜게 해준다.

그런데 어느 사회나 그 구심점으로 항상 예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

삶의 기록이자 예술의 총체인 문화를 바라봄으로써 현 사회의 모습을 더욱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함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고 있다.[81]

<표-11>[상록전시관 인문학 강좌]

구분	강좌일시	강의주제	강사명	간단약력
1강	3.20(화)	동양화의 맛과 즐거움	조송식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2강	4.24(화)	현대 미술 어렵거나, 쉽거나	박천남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3강	5.22(화)	시와 미술	최영미	시인/서울대 미술사학과 졸업
4강	6.26(화)	한국의 미는 과연 있는가?	윤범모	미술평론가 가천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5강	7.24(화)	영화는 미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한창호	영화평론가
6강	8.21(화)	백남준의 삶과 예술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7강	9.19(화)	중국 백년 예술사조	리시엔팅	중국 저명 평론가, 기획자
8강	10.23	자사호 속의 중국이야기	왕인선	중국공예미술대사
9강	11.20	천명을 받들어 떠나는 여행	박학선	사진작가
10강	12.11	삶과 기억, 그리고 소설	양철우	소설가,

81) http://artmuse.gwangju.go.kr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

<표-12>[성인, 예술 취미 강좌]

강좌명	시간	인원	개강일
화요 수채화 교실(중급)	10:00~12:30	25	9월4일(화)
예쁜글씨 “pop레터링(초,중급)”	10:00~12:00	20	9월4일(화)
베이비시터 자격증반 -한국평생교육원	10:00~12:30	20	9월4일(화)
누드 크로키 교실	10:00~12:00	25	9월5일(수)
재미있게배우는“켈리” -문자디자인	10:00~11:30	20	9월5일(수)
도자기세라믹 페인팅	10:00~11:30	25	9월6일(목)
한지공예(초,중급)	10:00~12:00	20	9월6일(목)
함께하는 오물조물 도예교실	10:00~12:30	25	9월7일(금)
연필 인물화	10:00~12:00	25	9월7일(금)
우리문양과 우리색감의 떡	10:00~12:00	15	9월7일(금)
천연비누 화장품만들기	10:00~12:00	20	9월7일(금)
미술심리치료사	10:00~21:00	20	9월7일(금)
토요수채화교실	10:00~15:30	20	9월8일(토)
또하나의 내모습 “닥종이 인형”	10:00~12:00	20	9월8일(토)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 1012가을학기 프로그램>

<표-13>[본관 이론 강좌]

강좌명	시간/요일	대상	일시/내용
미술관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톡톡! 현대미술”	14:~00~15:00	성인	-9/11(화): 세계인의 미술축제 아트 비엔날레의 의미와 역사 (윤익 학예연구1과장) -10/9(화): 뉴 미디어아트에서 넷아트까지 오병희 학예연구사) -11/1(화): 서양의 호남화단 (홍윤리 학예연구사)

(4) 대전 시립미술관

미술관은 우리시대의 미술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가치 있는 작품들을 수집 및 보존하는 이다. 이러한 기능은 혼신을 다해 창작에 매진하는 예술가들의 활동을 갈무리해서 한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주는 전문적인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기관이라는 점에서 미술관은 매우 대중적인 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술관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춰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곳이다.

대전 시립미술관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웠다. 우선 가장 중요한 미술관 기본 기능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수집, 보존, 전시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소중한 미술문화를 갈고 닦는 일에 더욱 힘쓰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전 미술문화의 역사를 정립하고 동시대와 미래의 가치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일은 대중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대전은 인구대비 미술관 관람객 수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아직도 미술관을 소수의 시민들만이 향유하는 고급문화로 인식하는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3년 동안 마련해온 대전 시립미술관의 인지도와 친밀감을 더욱 높여서 시민들의 삶 속에 미술문화가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술관의 홍보,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는 문화기관으로 거듭 나고 있다.[82]

[대전시립미술관 시민강좌프로그램]

대전시립미술관은 열린 미술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고 어린이와 성인 일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 · 운영 한다. 미술관의 프로그램인 교육강좌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수동적인 미술관 문화에서 벗어나 미술을 직접체험하고, 그러한 체험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화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미술문화 향수 방법이 되도록 하며, 미술에 대한 간심과 애호에 보다 넓고 깊은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82) http://dmma.daejeon.go.kr

<표-14>[판화-목판화]

판화의 특성과 전통판법에서 목판화와 석판화의 재료와 기법을 익히고, 이를 응용하여 판화의 조형성을 탐구하고 작품을 제작한다. 판화를 제작하기 전 아이디어 구상, 세부적인 재료와 다양한 기법에 따른 작품제작과 그 결과물을 응용해본다. 이와 함께 진화하는 현대판화의 실재를 체험하고 장르간의 벽이 없어진 현대미술에 대한 안목을 넓혀본다.

주	월/일	학습내용	학습방법	준비물
1주	8/28	전반적인와 볼록판화의 이해,목판화(볼록판화)기법	이론 및 실기	목판, 스케치
2주	9/4	목판화(볼록판화)기법 이해	실기	목판, 조각도
3주	9/11	목판에 밑그림그리기(단색판)	“	목판, 조각도, 물감, 종이
4주	9/18	목판에 밑그림 옮기기		트레팔지
5주	9/25	단색판 제작과정		
6주	10/2	제작과정 및 단색판 수정 및 바렌을 이용한 단색판 프린팅		바렌, 나무주걱
7주	10/13	소멸볼록판과 다색 볼록판이 이해	이론 및 실기	
8주	10/16	목판에 밑그림그리기(다색판)	실기	
9주	10/23	목판에 밑그림 옮기기		
10주	10/30	다색판 제작과정		
11주	11/6	제작과정 및 단색판 수정 및 프린팅		
12주	11/13	프린팅 및 평가		

<표-15>[한국 미술사]

우리나라와 동양의 미의식과 회화관(繪畫觀)을 이해하고, 조선 후기로부터 말기에 이르는 전통화단의 전개와 그 의의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대와 근대미술의 의미, 전통화단의 변화, 서양미술 유입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정착과정을 파악한다.
이후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현대미술의 정립과정, 196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는 현대미술의 전개와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주	일시	내용
1주	6.14	동양미술의 이해
2주	6.21	조선후기의 신경향
3주	6.28	조선말기와 개화기의 양상
4주	6.5	우리나라의 근대와 근대미술
5주	7.12	일제 강점기 미술 1
6주	7.19	일제 강점기 미술 2
7주	7.26	해방공간과 전쟁기의 미술
8주	8.2	1950년대 미술
9주	8.9	1960년대 미술
10주	8.16	1970년대 미술
11주	8.23	1980년대 미술
12주	8.30	1980년대 이후의 미술

(5) 삼성미술관 LEEUM

삼성미술관 Leeum은 여러 해 동안의 긴 준비 끝에 한국미술과 외국미술이 함께 숨쉴 수 있는 세계를 향해 열린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삼성그룹의 창립자 고(故) 호암 이병철 회장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수집한 한국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반으로 호암미술관과 호암갤러리, 로댕갤러리를 운영해 왔다. 이후 창립자의 뜻을 이어 한국미술사를 기록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을 수집·보강하고, 한국의 근·현대작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대 미술

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삼성미술관 Leeum은 우리나라 고미술품 전시를 위한 MUSEUM 1과 한국과 외국의 근·현대미술품 전시를 위한 MUSEUM 2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미술관들은 미래의 주역들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 기여하게 될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와 더불어 복합 문화단지를 이루었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게 될 삼성미술관 Leeum의 건축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83], 장 누벨[84], 렘 쿨하스[85]의 작품으로, 한 대지 안에 세 작가의 개성이 조화롭게 표현된 예술작품으로서의 미술관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다.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남산 자락에 세워진 삼성미술관 Leeum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극장과 더불어 서울 도심의 핵심문화시설을 이어 주는 새로운 문화지형을 구축,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부상시키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문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동양과 서양을 잇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으로서 아시아 미술의 구심점이 되어 세계를 향해 열린 예술과 문화의 발신지로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삼성미술관 Leeum은 미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다. Leeum은 한국 고유의 미를 담고 있는 전통미술과 생동하는 한국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는 현대미술,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세계적인 현대미술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미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제미술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둔다.[86]

---

83) Mario Botta,(1943-)스위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그의 트레이드 마크 스타일은 스위스에서 넓게 볼수있는데 대표적으로 타지노 지역 빌레 브란에 미디어 마크,에브리의 대성당 SFOMA이다.선앙심과 관련하여 Cymbalista synagogue&Jewish Heritage center를 디자인 했으며 성당에 대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느낌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84) Jean Nouvel,(1945-)누벨은 건축물 설계에 있어 주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위치를 가장 중요시 하며 피막 안의 내용물의 구조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을 강조,밝음과 어둠이라는 토명성의 교차가 일관되게 이루어 졌다.

85) Rem Koolhaas,현대 건축가, 서울대학교 미술관을 설계한 렘 쿨하스는 현대 도시건축 설계 뿐 아니라 건축이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건축가로서 영국 런던 AA건축학교에서 수학하였고, 뉴욕의'건축 도시문제 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또 근 현대 건축과 사회에 대한 고전으로 꼽힌는<정신착란증 뉴욕>(1978)을 집필하였으며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키 건축상을 수상(2000)하기도 하였다.

86) http://www.leeum.org

2012 리움 강좌

<표-16>[한국 근현대사와 시각문화]

시각문화는 영화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문화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다채롭게 이해하는 본 강좌는 예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할 것이다.

주	일시	내용	강사
1주	9/07	시각미술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이준
2주	9/14	엽서에 나타난 대한제국기와 일제하의 국가시작 상징물	목수현
3주	9/21	제국의 렌즈, 근대사진의 정치학: 황실 사진을 중심으로	이경민
4주	9/28	이상의 눈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근대	안창모
5주	10/05	1920,30년대 대중문화의 형성과 기생	김진송
6주	10/12	제 1공화국 이후:1950년대 한국사회와 미술	조은정
7주	10/19	1960년대 전후 한국영화	김소영
8주	10/26	1960년대 이후 한국미술과 행위예술	김미경
9주	11/02	김수근과 한국 현대건축; 응축된 근대의 유산	배형민
10주	11/09	시각문화와 도시 디자인의 공공미학	김민수
11주	11/16	단색주의와 다원주의:1980년대~2012한국현대미술의 역할	강수미
12주	11/23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의 이해	김영나

<표-17>[아시아 현대미술의 오늘 그리고 내일]

삼성미술관 Leeum에서는 미술사 강좌인 정기 강좌와 차별화하여 6회의 집중코스로 구성된 단기강좌를 선보이고 있다.

국제 미술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중국, 일본, 인도와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가늠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아울러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미술시장 특히 아시아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탐구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일시	내용	강사
4.03	중국: 멈추지 않는 이야기	윤재갑(독립큐레이터)
4.10	인도와 동남아의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	서진석 (대안공간 LOOP 대표)
4.17	일본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박소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24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적 위상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
5.01	아시아 미술시장의 성장	배혜경(한국크리스티 소장)
5.08	아시아 현대미술에서의 여성	김현주(추계예대 교수)

[미술관 밖 한국미술사]

미술관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하늘 아래 미술품, 전통건축이나 불탑, 단청, 성곽에 대한 이야기를 '미술관 밖 한국미술'이라는 테마로 고미술 강좌로 엮었다.

여행 중 만날 수 있는 전통건축이나 석탑, 단청, 성곽들에는 우리의 미감과 역사가 담겨져 있다. 미술관이 아닌 하늘과 맞닿는 열린 공간에 있는 미술품을 '삶의 공간', '새김과 장식', '밖에서 보는 그림'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 보는 시간을 갖는다.

<표-18>삶의 공간

일시	내용	강사
3.16	상징체계로 구성된 공간, 왕릉	김기덕(건국대학교)
3.23	유교의 가르침, 서원과 양반가	김도경(강원대학교)
3.30	국가를 수호하다, 성과 성곽	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장)
4.06	한국근대의 원 풍경, 대한제국의 도시와 건축	안창모(경기대학교)

<표-19>새김과 장식

일시	내용	강사
4.13	궁궐, 임금과 관원의 만남의 공간	홍순민(명지대학교)
4.20	커다란 염원, 大佛	송은석(동국대학교)
4.27	돌에 새긴 불교예술: 석탑(1) 삼국~통일신라	엄기표(단국대학교)
5.04	돌에 새긴 불교예술: 석탑(2) 고려~조선	엄기표(단국대학교)
5.11	가르침의 빛, 禪師의 혼: 부도	신용철(통도사성보박물관)
5.18	민간의 삶과 희망, 장승과 벅수	장장식(국립민속박물관)

<표-20>밖에서 보는 그림

날짜	내용	강사
5.25	붉고 푸르게 건축을 물들이다, 단청	손현숙(단청연구원)
6.01	한국 괘불화의 특색: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박은경(동아대학교)

2. 평생학습을 위한 미술관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대는 평생교육의 시대이다. 기존의 학교교육은 더 이상 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넘쳐나는 정보와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켰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과 물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서의 사회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가하고 자기 주도적이며 문제중심의 학습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사회교육은 교양교육 차원과 사회교육 차원으로 나위어진다. 교양교육의 차원의 미술교육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전문교육의 차원으로서 미술교육은 재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미술관은 학교나 사설 미술교육 단체에 비해 좋은 교육적 기관으로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학교 미술교육과는 달리 표현능력의 개발분 아니라 미술사 및 미술이론 과정의 수강을 통해 미술사, 감상, 비평능력까지 기를 수 있다. 또 미술이론과 실기, 미술사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 확보에도 유리한 장소이기도 하다. 국내외의 많은 미술관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과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주고 관람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미술관을 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미술관의 중요 사업이라기보다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물관의 운영과 활동이 소장품과 전시 위주로 이루어져 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사회적 · 공익적 역할에 대한 미술관 운영진의 인식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미술관 교육을 단순히 의무나 구색이 나닌 경영전력의 핵심으로 보는 태도의 전환이 시급하다.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내의 미술관 교육은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현재 미술관에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어린이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청소년과 평생교육의 이념 하에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식해야 한다. 위 <표-4>와 <표-5>의 근거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미술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술교육프로그램 중에서도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30곳으로 전체 미술관 중 20% 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다. 성인학습자의 경험을 통한 학습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계층별, 연령별로 나뉘어야 하며 성인과 어린이, 일반인과 전문가 정도의 구분만을 가진 국내 프로그램은 보다 세분화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인을 성인층과 노인층으로 구분하고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신설이 되어야 한다. 재교육 차원에서 전문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양적증대와 질적향상이 동시에 요구 된다.

둘째, 미술 분야 전문가 및 애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여 교육 사업이 너무 한정적인 사람들을 위해 치우친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수의 지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수, 학습 과정이 강조되는 현재의 실기나 이론위주의 강좌들은 학교교육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인학습자는 스스로 학습을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20세기의 미술관에서 21세기 학습자들이 교육을 받는 격이 된다. 현대는 컴퓨터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의 미술관이 도심과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 더 이상 대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술관을 찾아오지 않는 대중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Web을 기반으로 사이버 교육을 기획하고 현재 전시나 소장품을 주제로 하여 CD타이틀 등을 개발하는 등의 대중에게 먼저 다가갈수 있는 프로그램 방향등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재정적인 문제로 무료 제공이 힘들어 유료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고 지금처럼 각 미술관의 홈페이지에서 소장품을 찾아보는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미술관의 특성과 다양한 관람객의 유형과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미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학습 프로그램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미술에 많은 비중을 두는 미술관의 경우 전시와 문학, 음악, 연국등 다른 예술분야를 연계하여 대중들이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일과성 교육행사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미술관 교육이 되고 있지 못한다. 미술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보이지 않고 자체적인 깊은 연구 없이 선진국 미술관의 교육활동 모델을 빌려오거나 다른 미술관이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 교육프로그램을 반복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프로그램 유형은 미술이론과 실기교육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 이론 강좌를 사조별, 작가별로의 분반이나 입문반, 심화반 또는 연구반 등으로 전문성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또한, 단순강좌에서 토론이나 워크숍, 감상교육과 실기교육이 통합된 프로그램과 음악회 등 타 장르와 통합된 복합형태로 제공된다.

넷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등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미술관 교육 전문가(educator)와 미술관 교육 기획에 맞춰 실행할 교육 담당자 등 교육 인력의 충원이 요구 된다. 이미 많은 선행 논문에서 미술관 교육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만큼 미술관 교육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방안인 외부강사의 활용도 나쁘진 않지만 일회성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책임감 또한 약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 자체에 교육서를 갖추고 전문 교사진이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미술관과 같은 비영리 기관은 국공립 미술관에 비해 교육인력 담당자 직원 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큐레이터가 교육인력 담당까지 맡아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서구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미술관 교육을 단순한 의무나 구색 갖추기의 차원에서 나아가 경영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연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이 쟁점으로 되었다. 2005년 에듀케이터 제도가 도입되고 미술관마다 에듀케이터가 충원되었다. 문제는 전문성을 지닌 에듀케이터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실시되면서 미술관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시킬 기관이나 시스템을 결여한 채 에듀케이터들이 양산되었다. 국공립미술관의 경우도 대부분 교육직을 별도의 직무 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예직이 교육직을 순환 보직으로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다. 실기 전공자들이 90%를 차지하는 사립미술관 에듀케이터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미술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인턴쉽 과정을 거치고 에듀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어 이론적 교육적 지식이 낮아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국내 미술관은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육을 부차적으로 인식해 온 결과 학예사의 전문성은 당연시해 왔던 반면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은 간과해 왔다. 그러나 미술관은 역사적으로 시각문화를 주도해 온 기관으로, 미술관 에듀케이터는 미술사를 넘어선 시각문화와 관련된 문화이론, 미술사 그리고 교육방법론 등 이론적 토대 위에 교육대상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므로 교육가이자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미술관에 교육부서가 조직화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교육부서가 있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도 교육이 섭외 홍보 기능과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곧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교육업무 체계에 의한 효율성과 연구 성과를 통한 지속성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대중을 미술관으로 유인하고 홍보하며 미술 소비자를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국립이나 공립 미술관은 공공시설로서 국민에게 보다 높은 문화적 소양을 심어주기 위해, 사립 미술관은 기업의 탈세를 위한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대중을 위한 시설로서 거듭나야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요구 된다.

미술관이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미술관, 친숙한 미술관이 될 것이다. 대중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Ⅴ. 결론

오늘의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한 변화에 맞추어 순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 정규적인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평생을 교육과정으로 일관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인간의 참된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전의 학교교육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교양이나 지식분야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정규교육의 부설기관이나 사회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관 교육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반 성인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성인층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노인 장애인으로 세분화 하여 각 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생성, 진행 해야한다. 그러나 국내의 미술관 교육은 자리가 잡힌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인들은 사회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국민전체의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개인의 지적, 문화적 욕구가 더욱더 증대될수록 성인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기를 원하며 진정한자아를 찾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 사회로의 발전에 힘입어 문화예술부문의 수요가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21세기의 멀티미디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좀 더 새롭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인 그들의 삶속에서 누리고자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미술관 역시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적 역할에서 더욱 나아가 개인의 여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들은 미술관에서 내·외적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의 감성과 이성이 빛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미술관은 단순히 미술을 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찾게 되는 공간이 아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현시대를 사는 사회인들 에게 정신적 여유와 풍요로움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러

므로 현대사회의 미술관은 전시, 교육을 비롯한 모든 활동들에 있어 빠른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미술관 활동을 제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대중의 미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관심,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형색으로 제공되며, 현대의 미술, 문화 교육적 가치에 따라 점차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실행되어진다.

본 연구는 국내 미술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교육적 가치와 미술교육 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보다 나은 미술관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술관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어린이 중심으로 편성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한정적인 사람에게만 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이 부실하였으며 지속 발전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일과성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인력이 부족하고 미술관 내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 독립된 교육부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사회에서 미술관 성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과 어린이, 일반인과 전문가 같은 커다란 구분이 아닌 좀더 세분화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미술관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모이며, 제대로 된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미술관 운영진들이 미술관 교육을 경영전력의 핵심으로 보며, 미술관의 사회적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운영진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미술관 조직 내에 독립적인 교육부서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교육부서에서 확보한 예산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educator)나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이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미술관, 친숙한 미술관이 될 것이다. 대중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변종임, 교육과학사

교육사회학, 김병욱, 학지사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백령, 예경

미래의 미술관(국내외 미술관 교육의 역사 현황 대안) 김지호

미술관과 소통, 김형숙, 예종

박물관학 개론, 이보아, 김영사

평생교육의 이해 장원동, 윤영란 공저 동문사

평생교육의 이해, 차갑부, 학지사

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 이주헌, 학고재

<정기간행물>

광주시립미술관 연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연보

<학위논문>

강지영. 평생학습을 위한 미술체험 프로그램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석사학위 논문

김경민. 일반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년 석사학위 논문

김규리. 평생교육관점에서 박물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2009년 석사학위 논문

박순식. 평생교육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년 석사학위 논문

손지영.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실태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년 석사학위 논문

신혜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석사학위 논문

정미란. 미술관과 학교 연계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홍숙정. 박물관·미술관의 노인 문화 예술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석사학위 논문
황나래. 미술관과 학교 미술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석사학위 논문
황아람.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년 석사학위 논문

<Internet web site>
가 일 미 술 관 www.gailart.org
강 남 구 포 스 코 미 술 관 www.posco.co.kr
경 기 도 미 술 관 www.gmoma.or.kr
경기문화예술교육 웹진지붐붐 www.gbom.net
경 남 도 립 미 술 관 www.gam.go.kr
광 주 시 립 미 술 관 www.artmuse.gwangju.go.kr
국 립 현 대 미 술 관 www.moca.go.kr
금 호 미 술 관 www.kumhomuseum.com
남 포 미 술 관 www.nampoart.co.kr
당 림 미 술 관 www.blog.naver.com/dangrim
대 림 미 술 관 www.daelimmuseum.org
대 전 시 립 미 술 관 www.dmma.metro.daejeon.kr
마 가 미 술 관 www.magamuseum.co.kr
모 란 미 술 관 www.moranmuseum.org
무 등 현 대 미 술 관 www.cafe.daum.net/mdmoca
밀 알 미 술 관 www.mfm.or.kr
백 남 준 아 트 센 터 www.njparkcenter.kr
부 산 시 립 미 술 관 art.busan.go.kr
사 비 나 미 술 관 www.savinamuseum.com
삼 성 미 술 관 리 움 www.leeum.org
상 원 미 술 관 www.imageroot.co.kr
서 울 시 립 미 술 관 seoulmoa.org

서 울 대 학 교 미 술 관 www.snumoa.org
서 호 미 술 관 www.seohoart.com
석 봉 도 자 기 미 술 관 www.dogong.net
성 곡 미 술 관 www.sungkokmuseum.co.kr
성 북 구 립 미 술 관 sma.gongdan.go.kr
소 마 미 술 관 www.somamuseum.org
송 도 디 오 아 트 센 터 www.dioartcenter.com
스 페 이 스 몸 미 술 관 www.spacemom.org
시 안 미 술 관 www.cyanmuseum.org
아 르 코 미 술 관 www.arkoartcenter.or.kr
아 트 선 재 센 터 www.artsonje.org
아 트 센 터 나 비 www.nabi.or.kr
영 은 미 술 관 www.youngeunmuseum.org
우 제 길 미 술 관 www.wooart.co.kr
일 민 미 술 관 www.ilmin.org
임 립 미 술 관 www.limlipmuseum.org
전 라 남 도 옥 과 미 술 관 www.okart.org
전 라 북 도 립 미 술 관 www.jbartmuse.go.kr
제 주 현 대 미 술 관 www.jejumuseum.go.kr
조 선 대 학 교 미 술 관www.chosun.ac.kr/~art
창 원 대 산 미 술 관 www.daesanart.com
치 우 금 속 공 예 관 www.chiwoocraftmuseum.org
클 레 이 아 크 김 해 미 술 관 www.clayarch.org
토 탈 미 술 관 www.totalmuseum.org
통 영 옻 칠 미 술 관 www.ottchil.org
포 항 시 립 미술관 www.poma.kr
한 국 공 예 관 www.koreacraft.org
한미사진미술관 www.photomuseum.or.kr
한 원 미 술 관 hanwon.org
헬 로 우 뮤 지 엄 어 린 이 미 술 관 www.hellomuseum.com
한 원 미 술 관 hanwon.org
환 기 미 술 관 www.whankimuseum.org